

9 September 2021
Vol.357

COVER STORY

한국의 전통미학으로 재탄생한
셰익스피어 고전 '십이야'

COLUMN

가느다랗지만 구석구석 스며드는 실핏줄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임시수도기념관



극단 여행자 '십이야'

2022년도 상반기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정기대관 안내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 대상

- ▷ 부산문화회관 : 극장(대/중/챔버홀), 전시실
※ 사랑채극장은 연간 기획공연 진행에 따라 대관 불가
- ▷ 부산시민회관 : 극장(대/소), 전시실 1, 2
※ 대극장은 시설점검으로 인해 1월, 2월 대관 불가

◆ 대관내용

- ▷ 대관기간 : 2022. 1. 1. ~ 6. 30.(6개월)
- ▷ 대관 가능일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부산시민회관(www.bscc.or.kr/citizen) 홈페이지
대관공지사항 참조
-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9. 8.(수) 09:00 ~ 9. 24.(금) 18:00

◆ 접수 방법 온라인 및 전자우편 접수

(전화 및 구두 / 방문신청은 받지 않음)

- ▷ 온라인 : www.bscc.or.kr/rental
- ▷ 전자우편 : 부산문화회관 : 극장 rent@bscc.or.kr
전시실 gjh1834@bscc.or.kr
부산시민회관 : 극장 bch@bscc.or.kr
전시실 binimel@bscc.or.kr
- ▷ 결과회신 : 10월 중순(예정)

◆ 대관심의 우선기준

- ▷ 순수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상업적 목적의 공연(행사) 및 전시는 대관 제외

◆ 대관신청 및 승인절차

신청 및 접수 ▷ 대관심의 ▷ 심의회 결과 통보

◆ 대관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 ▷ (재)부산문화회관 대관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 시설대관신청서, 세부계획서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
-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파일 첨부(온라인, 전자우편 접수 등 일하게 적용)
- ※ 공연계획서가 없는 신청서는 접수 할 수 없으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납부

- ▷ 계약금(대관료의 30%) : 시설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 체결
- ▷ 잔금 : 공연/전시 예정일 30일 전(대극장은 60일 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70% 납부
-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 승인이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 부가세 별도 부과

◆ 문의

- ▷ 부산문화회관(대관담당)
극장 051-607-6054 / 전시실 051-607-6073
- ▷ 부산시민회관(대관담당)
극장 051-630-5237 / 전시실 051-607-6071

2021 시민 뜨락축제

어반피크닉, 힐링 마이 라이프!

일시 2021.9.24(금) ~ 10.22(금)

매주 금요일 12:20

장소 부산시민회관 광장 야외무대

주최/주관 (재)부산문화회관

일정	단체명	장르
9월 24일	블루양상블	클래식
	댄스팀 룩스	대중댄스
10월 1일	퓨전국악밴드 비원	퓨전국악
	Project A	스트릿 댄스
10월 8일	얼터너티브 국악그룹 초아	퓨전국악
	알싸께또마부산플라멩코	댄스(플라멩코)
10월 15일	이끌림 양상블	클래식
	어쿠스틱 나무의자	포크음악
10월 22일	부산시립합창단	클래식
	창작연희 The늬	전통예술 &힙합퓨전



2021. 9.14 TUE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브람스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5회 정기연주회

좋아하세요?



객원지휘 강석희



바이올린 신호은

Johannes Brahms · Academic Festival Overture, Op.80
요하네스 브람스 · 대학축전 서곡

Johannes Brahms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77
요하네스 브람스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Johannes Brahms · Symphony No. 1 in C Minor, Op.68
요하네스 브람스 · 교향곡 제1번

입장료 균일 2,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6000(ARS 1번)

품격있는 해설과 음악이 있는
“굿모닝 콘서트” 시리즈!

서부산권 문화의전당
을숙도문화회관

을숙도 음악카페



Good Morning!

굿모닝 콘서트



여유로운 오전시간,
커피와 음악이 있는 을숙도 음악산책

해설 _ 안희성아나운서 (MBC부산문화방송)

클래식 복합 <더 아티스트>

Classic, Fall in Jazz & Tango | 09월 03일(금)

콜라보양상블 <Ari 클래식>

화려한 크로스의 만남 | 10월 22일(금)

브라스밴드 <부산뷰 브라스밴드 콰이어>

바람에 실은 선율의 울림 | 11월 26일(금)

현악양상블 <부산솔로이스츠>

4현의 사랑과 낭만 | 12월 10일(금)



오전11시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15,000원 (블랙업 커피 포함)



공연예술인
김명곤

금요일 브런치타임, 여섯 남자의 인문학 이야기

BSCC 인문학⁺ 콘서트: 향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21.9.24(금) 오전 11:00 전석 20,000원

영원한 광대 김명곤의 풍류정담(風流情談)
김명곤 배우·연출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

CONTENTS

09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September 2021 Vol.357

2021년 9월호 통권 357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최용부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1년 8월 25일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 08 **Cover Story**
한국의 전통미학으로 재탄생한
셰익스피어 고전 '십이야'
- 12 **Column**
가느다랗지만 구석구석
스며드는 실핏줄
- 14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②**
고대 그리스 올림픽 선수의 복장
- 18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복적이고 아찔던 천일간의 기억들
임시수도기념관
- 21 **Preview**
- 28 **Issue**
한국 현대사진 거장 임응식 작품展
부산에서 서울로
- 32 **Review**
- 34 **Program Guide**
- 49 **New Book**
- 50 **BSCC News**
- 52 **이주임의 24시**
(재)부산문화회관의 베이시스트
인사협력팀

SUN	MON	TUE	W
<p>일요일</p> <p><u>'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 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u></p>	<p>부산문화회관 전시실</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매그넘 인 파리 6월 28일(월)-10월 10일(일)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6:00 (입장마감 오후 5:00) 입 장 료 :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3천원, 어린이 1만원 문 의 :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070-7779-8990)</p>		
<p>5</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MOTI/어디로부터' 17:00 대 5만원 3만원 2만원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양상블 자비에 정기연주회 18:00 중 전석 2만원 / 양상블 자비에 (010-4006-0059) 이주형 플루트 독주회 18:00 첼 전석 2만원 / 이주형 (010-2032-2211)</p>	<p>6</p>	<p>7</p>	<p>8</p> <p>◆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악 칸타타 '일향악' 19:30 대 1만원 5천원 / (재)부</p> <p>김미숙의 예무지도무 '동 중 박미경 (010-8786- 센토첼버소사이어티 제1 19:30 첼 전석 2만원 / 아트뱅크</p>
<p>12</p> <p>안단테 더 포에트리 부산 18:00 첼 전석 9만9천원 / 위클래스 (070-4190-1289)</p>	<p>13</p>	<p>14</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5회 정기연주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19:30 대 전석 2천원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p>	<p>15</p> <p>2021 현대무용단 자유 경 중 2만원·1만원 / 현대무용</p>
<p>19</p> <p>경성대학교 음악학부 제2회 정기 오페라 'La Traviata Concert Opera' 17:00 대 초대 /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633-4918, 4829)</p>	<p>20</p>	<p>21</p>	<p>22</p>
<p>26</p> <p>제1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콘서트' 13:00, 17:00 대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조직위원회 (516-8293) 2021년 제6회 부산국악생활문화예술제 14:00 중 초대 / 부산국악생활문화연합회 (010-2889-0655)</p>	<p>27</p>	<p>28</p> <p>테너 김준연 독창회 19:30 중 김준연 (010-8950-8136)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교육공연 '재밌는 국악 신나는 국악' 10:30 첼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3) ◆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미운오리새끼' 11:00 사 전석 1만원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p>	<p>29</p> <p>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중 초대 / 한국피아노학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악 신나는 국악' 10:30 첼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 부산시립극단 특별공 사 전석 1만원 / (재)부산</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p>1</p> <p>苦同樂* 19:30 7649) 0회 정기연주회 '희망' 코레아(442-1941)</p>	<p>2</p> <p>2021 문화윤곽 제3회 정기공연 '家長(가장)' 19:30 중 7만원·5만원·3만원/문화윤곽(010-3120-4116)</p>	<p>3</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MOTI/어디로부터' 20:00 대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4</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MOTI/어디로부터' 17:00 대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2021 시네 오페라 초이스 라 스칼라 '아이다' 15: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8회 장재혁 클라리넷 독주회 18:00 캠 전석 2만원/김태훈(010-7543-0883)</p>
<p>8</p> <p>단 제211회 정기연주회 세계기(一響樂 世界起)* 부산문화회관(607-6000)</p> <p>9:30 석 (070-8811-0513)</p>	<p>9</p> <p>◆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1회 정기연주회 국악 칸타타 '일향악 세계기(一響樂 世界起)' 19:30 대 1만원·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바리톤 시영민 독창회 19:30 캠 초대/시영민(010-4182-0176)</p>	<p>10</p> <p>Homecoming to Dong-A Piano!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앙상블의 밤' 19:30 중 초대/김정은(010-2176-5563) 기업과 예술의 이음콘서트 19:30 캠 2만원·1만원/아첸투스(010-8559-0415)</p>	<p>11</p> <p>김은정&김해리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19:00 캠 전석 1만원/김은정(010-2802-1672)</p>
<p>5</p> <p>정기공연 20:00 단 자유(010-2610-2914)</p>	<p>16</p> <p>◆ 부산MBC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8회 정기연주회 '합창'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독일가곡연구회 제59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를 사랑하시나요?' 19:30 중 부산독일가곡연구회(010-4313-7113)</p>	<p>17</p> <p>Homecoming to Dong-A Piano!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앙상블의 밤' 19:30 중 초대/김정은(010-2176-5563) 기업과 예술의 이음콘서트 19:30 캠 2만원·1만원/아첸투스(010-8559-0415)</p>	<p>18</p> <p>경성대학교 음악학부 제2회 정기 오페라 'La Traviata Concert Opera' 17:00 대 초대/경성대학교 음악학부(633-4918, 4829) 소프라노 정수정 귀국 독창회 17:00 중 전석 2만원/정수정(010-6319-7140)</p>
<p>12</p>	<p>23</p>	<p>24</p> <p>◆ (재)부산문화회관 BSCC 인문학 콘서트:향연 '배우 김명곤의 풍류정담' 11:00 중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5</p> <p>제1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콘서트' 13:00, 17:00 대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조직위원회(516-8293) 아트뱅크코레아 기획공연 드보르작 탄생 180주년 기념연주회 'Bohemian Forest' 17:00 중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신채린·이명로 듀오 리사이틀 19:30 캠 이명로(010-5758-5807)</p>
<p>19</p> <p>제21회 정기연주회 19:30 영남지부(010-9074-1368) 예술교육공연 '재밋는 국악 신나는 국악' 사업팀(607-3113) 연 '마운오리새끼' 11:00 문화회관(607-6000)</p>	<p>30</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77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중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교육공연 '재밋는 국악 신나는 국악' 10:30 캠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 부산시립국악단 특별공연 '마운오리새끼' 11:00 사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사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
<p>안무</p> <p>'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 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부산시민회관 전시실</p> <p>한국 현대사진 거장 임응식 작품展 '부산에서 서울로' 9월 10일(금)~10월 24일(일) 1, 2층 전시실 관람시간: 오전 10:00~오후 6:00 (매주 월요일, 9월 21일 휴관) 입장료: 무료 ※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사전예약 필수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p>		
<p>5</p> <p>제7회 부산국제폴킴퍼인십 09:00 대 황미리재즈댄스아카데미(010-6775-8867) 2021 아시아 음악 콩쿠르 09:00 소 아시아 코리아 연예뉴스010-2548-8038</p>	<p>6</p>	<p>7</p>	<p>8</p> <p>창작뮤지컬 'STOP' 13:00 소 부산광역시산업재해경</p>
<p>12</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2021 뮤지컬 '광화문연가' 14:00, 18:30 대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극단 예일 어린이뮤지컬 '햇빛고 시즌 2' 11:00, 13:30, 15:30 소 전석 4만4천원/극단 예일(02-555-0822)</p>	<p>13</p>	<p>14</p>	<p>15</p> <p>부산콘서트밴드 초청 가요 대 대양고등학교(640-0</p>
<p>19</p>	<p>20</p>	<p>21</p>	<p>22</p>
<p>26</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청년, 음악으로 만나다-당신은 장애인 동료가 있습니까?' 17:00 소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7</p>	<p>28</p>	<p>29</p> <p>부산시민회관 부산 문화기 '소원' 19:00 소 무료(초등학생 이상 관 (재)부산문화회관 60</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1	2	3	4
		<p>2021 제1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I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19:30</p> <p>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p>	<p>제7회 부산국제폴킴피연습 18:00</p> <p>대 황미리재즈댄스아카데미(010-6775-8867)</p> <p>2021 아시아 음악 콩쿠르 09:00</p> <p>소 아시아 코리아 연예뉴스(010-2548-8038)</p>
8	9	10	11
<p>0, 15:30</p> <p>상애인협회(807-0091)</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2021 뮤지컬 '광화문연가' 15:00, 19:30</p> <p>대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극단 에일 어린이뮤지컬 '렛잇고 시즌 2' 11:00, 14:00, 16:00</p> <p>소 전석 4만4천원/극단 예일(02-555-0822)</p>
5	16	17	18
<p>음악회 14:00</p> <p>647)</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십이야' 19:30</p> <p>소 4만원·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십이야' 15:00</p> <p>소 4만원·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Art Project A to Z' 09:30</p> <p>연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2	23	24	25
		<p>부산시민회관 2021 시민뜨락축제 '블루앙상블, 맨스팀 록스' 12:20(*우천시 취소)</p> <p>야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25회 전국 유치원·초·중학생 무용경연대회 10:00</p> <p>대 부산예술고등학교(515-8106)</p> <p>◇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Art Project A to Z' 09:30</p> <p>소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9	30		
<p>있는 날_배시시 명품극장</p> <p>관람가, 사전예매 필수)</p> <p>7-6000</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한국의 전통미학으로 재탄생한 셰익스피어 고전

낭만 희극 '십이야'

9. 17^㉔ ~ 9. 18^㉕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셰익스피어 고전을 한국의 전통적 미학과 접목시켜 새롭게 재해석한 유쾌한 낭만희극 '십이야'가 부산을 찾는다. 특히 이번 무대는 '셰익스피어 스페셜리스트'로 통하는 연출가 양정웅이 이끄는 극단 여행자의 무대로, 극단 여행자는 그동안 '한여름 밤의 꿈' '로미오와 줄리엣' '십이야' '햄릿' '맥베스' 등 셰익스피어 고전을 한국적 양식과 접목시키는 실험적인 무대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아왔다.

극단 여행자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유쾌한 낭만희극

'남장여자'로부터 비롯된 얽히고설킨 사랑의 에피소드를 그린 셰익스피어의 '십이야'는 엘리자베스 여왕 재임시절인 1601년, 영국을 방문한 이탈리아의 오시노 공작을 환영하기 위한 연회에서 초연되었다고 전해진다. 때마침 공작의 방문일이 1월 6일로, 예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로부터 열두 번째 되는 날인 '십이야(十二夜, Twelfth Nigh)'였기에 공작을 환영하는 한편, 크리스마스 축제기간의 마지막 날을 축하하기 위해 이름 붙여졌다 한다. 특히 이날 초연무대에서는 당시만 하더라도 여배우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남자배우들로만 무대에 올랐

다. 극단 여행자의 '십이야' 역시 전체 출연진을 남자배우들로만 캐스팅하면서 여느 무대와는 다른 극단 여행자만의 위트 넘치면서도 강렬한 무대를 선사한다.

또 다른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한여름 밤의 꿈'을 한국적 정서가 물씬 풍기는 도깨비들의 난장으로 바꿔놓았던 극단 여행자는 이번 작품에서 셰익스피어 원작에 한국적 웃음을 더해 서양 사람들의 사랑싸움을 친근한 우리네 이야기로 풀어낸다. 남사당패의 놀음을 연상케 하는 무대에 한국 전통의 목각인형인 '꼭두인형'에서 이미지를 가져온 전통의상과 땅재주·수벽치기·전통무예 등 역동적인 움직임이 시선을 사로잡으며, 군데군데 등장하는 '리어왕' '배비장전' 등 국내외 명작들의 패러디 장면들은 관객의 또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토종 야생화 이름과 어우러지는 사랑의 에피소드

특히 극단 여행자는 이전 작품에서의 등장인물의 이름을 십이간지(환), 별자리(한여름밤의 꿈)에서 가져왔는데 이번 작품 '십이야'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우리네 토종 야생화와 연결시킨다. 쌍둥이 남매인 청가시(세바스찬)와

홍가시(바이올라)는 풍랑을 만나 헤어지고, 섬에 표류한 홍가시는 남장을 한 채 산자고(오시노 공작)의 시종이 된다. 섬초롱(올리비아)을 짝사랑하는 산자고는 섬초롱에게 홍가시를 보내 자신의 사랑을 전하지만 섬초롱은 첫눈에 홍가시에게 반해 구애를 한다. 남장을 한 홍가시는 산자고를 짝사랑하지만, 산자고에게 사랑을 줄 수도, 섬초롱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 괴로워 한다. 이런 가운데 홍가시의 쌍둥이 오빠인 청가시까지 나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간다.

이번 무대는 지난 2011년 서울남산국악당 공연 이후 10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무대로, 2021년 새로운 창작진들과 함께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현재 극단 여행자의 예술감독으로 있는 연출가 양정웅은 2006년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밤의 꿈’으로 ‘꿈의 공연장’이라 불리는 런던 바비칸센터에 국내 최초로 입성한 연출가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총 연출을 맡는가 하면 연극을 넘어 무용, 오페라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왔다. 지난해는 영화 ‘더 박스’가 개봉되면서 영화감독으로도 데뷔하기도 한 양정웅은 ‘셰익스피어 스페셜리스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올해 연극 ‘코리올라누스’까지 총 아홉 작품의 셰익스피어극을 무대에 올려 믿고 보는 연출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적 미와 세계무대를 향한 보편적 연극언어 추구

언제나 새로운 탐험을 향해, 모험을 감행하는 극단 여행자(Yohangza Theatre Company)는 지난 1997년 결성된 후 ‘한여름 밤의 꿈’을 비롯하여 ‘緣 KARMA’, ‘환’, ‘미실’ 등에서 신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동양적인 정서의 음악, 의상, 무대 미술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여왔다. 특히 한국적인 미를 기본으로 한 극단 여행자만의 작품 스타일은 해외에서 더욱 작품성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3년 제15회 카이로 국제실험연극제 대상(緣 KARMA), 2006년 제10회 폴란드 그단스크 국제 셰익스피어 페스티벌 대상 및 관객상(한 여름밤의 꿈)을 수상하여 당시 큰 호평을 받았다. 2006년 한국 최초로 가진 영국 바비칸센터 초청공연으로 한국 연극계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기도 한 극단 여행자는 동양의 연극 정통과 세계무대를 향한 보편적 연극 언어를 추구하고, 대사 중심의 연극을 벗어나 배우들의 신체와 몸으로 만드는 이미지와 감각적인 미장센들로 고유한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낭만희극
십이야
十二夜

2021. 09.17. (금) 19: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09.18. (토) 15: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오리지널 연출
양정웅

재연출
이대웅

출연

이국호 장현석
한상훈 김진곤
조찬희 한인수
최경훈 김호준
김명연 김해중

티켓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및 예매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가느다랗지만 구석구석 스며드는 싹줄

동길산 시인·본지 편집위원장



코로나가 오래간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다 보니 문화예술계 역시 어렵다. 공연계가 특히 그렇다. 비대면으로 활로를 찾고는 있지만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공연예술은 대면을 전제로 하는 까닭이다. 연주자와 관객이 숨소리마저 맞추어 나가면서 하나가 될 때 예술성은 극치를 이룬다.

그렇다고 코로나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 코로나는 강하지만 예술은 더 강하다. 코로나보다 강한 예술의 진면목을 소규모 공연단체 두 군데에서 확인했다. 코로나에 맞서는 해법을 거기서 보으며 코로나의 강을 건너서 저 건너편 피안(彼岸)의 세계로 나아가는 예술의 미래랄지 가능성을 거기서 봤다.

음악단체 두 군데는 순전히 개인적인 인연으로 알게 됐다. 한

군데는 거기서 기획을 맡은 음악평론가와 이런저런 인연으로 10년 넘게 알고 지내는 사이고 한 군데는 직접적으로 아는 구성원은 없지만 거기 작곡가의 아버지가 1990년대인가 부산일보 문화부장을 지내서 알던 터였다.

굳이 개인적인 인연을 털어놓는 건 이유가 있다. 이 두 단체 말고도 부산에는 품격과 수준을 갖춘 소규모 공연단체가 숱하게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다. 규모만 작았지 예술성은 독보적인 이들 전문예술단체야말로 부산 공연예술의 역동하는 싹줄이다. 가느다랗지만 구석구석 스며드는 싹줄처럼 가느다랗지만 일반인의 삶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

<음악풍경>과 <시작(詩作)음악회>. 두 군데 음악단체의 명칭

이다. 둘은 공통점이 있다. 개성이 강하면서 시민 친화적이다. 자기만의 예술성은 견지하면서 관객에게는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음악을 내놓는다. 그러기에 코로나 이전에는 공연 때마다 객석이 넘쳤고 코로나 이후에는 거리 두기만큼의 객석이 꼭 찬다.

공통점은 또 있다. 시대를 읽는 눈이 밝다.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음악은 시대를 읽는 밝은 눈에 기반을 둔다. 그리고 그것의 뿌리는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동질감에서 비롯한다. 예술가와 관객은 결코 다르지 않다. 별개의 존재가 결코 아니다. 예술가가 사는 사회가 고통스러우면 관객 내지 시민이 사는 사회 역시 고통스럽다.

시대를 읽는 밝은 눈은 직시한다. 돌아가거나 돌러가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선 대들 듯 다가간다. 가장 가까이 다가가선 정강이를 걷어차는 기개가 통쾌하다. 코로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유쾌, 상쾌, 통쾌는 객석의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코로나 나는 강하지만 예술은 더 강하다는 것을 관객의 면전에서 관객과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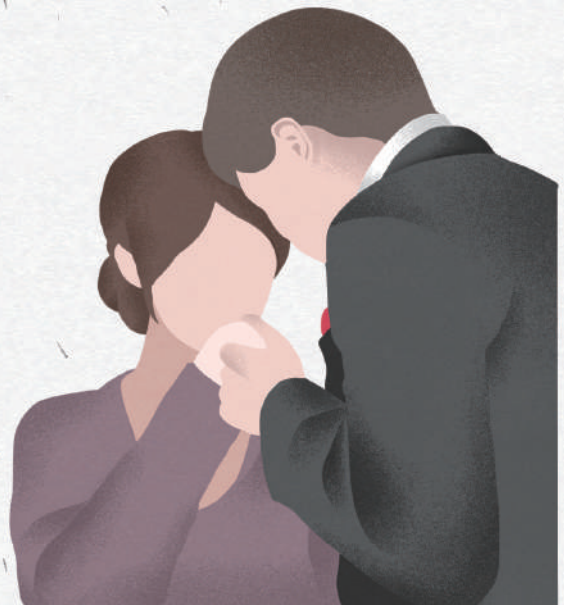
‘짜장면 없는 짜장 콘서트’와 ‘코로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다.’ 앞엿것은 <음악풍경> 공연 명칭이고 뒤엿것은 <시작음악회> 공연 명칭이다. ‘짜장면 없는 짜장 콘서트’의 원래 명칭은 ‘짜장 콘서트’였다. 기침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공연장에서 짜장면을 후루룩 먹는다는 발칙한 상상력이 현실에서 이뤄졌고 코로나 이전에는 실제로 그랬다. 코로나에 맞서 지금은 짜파게티를 봉지째 나눠 주지만 코로나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결연하다.

<시작음악회>는 더 직설적이다. 코로나를 곧장 소환한다. 그러면서 희망의 세계, 강 건너편의 피안으로 나아간다. 어린이들이 직접 부르는 창작동요, 그리고 가곡 위주로 매년 발표해 오다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어린이 대신 성악가가 나서고 있다. 이 또한 코로나와의 한판 대결에 밀리지 않겠다는 예술정신의 승화다.

규모의 경제. 나는 경제학을 전공했다. 학교 다닐 때 입에 달고 다녔던 용어가 ‘규모의 경제’였다. 그리 어려운 말은 아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클수록 좋다’쯤 된다. 그러나 매사 그런 것은 아니다. 크면 둔해지고 느려진다. 규모가 작아서 좋은 점은 얼마나 많은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맛이며 상차림이 대동소이한 체인점 대신 고집 하나로 2대, 3대를 이어 가는 노포는 송고하게까지 보인다.

대규모 공연단체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물론 아니다. 예술을 크고 작은 거로 양분할 수 없듯 단체 또한 크고 작은 거로 이분할 수 없다. 대규모 단체는 그대로, 소규모 단체는 또 그대로 그들만의 예술성으로, 그들만의 고집으로 각자에게 맞는 예술을 이때까지 펼쳤고 지금도 펼치며 앞으로도 펼칠 것이다.

코로나 이 시대! 코로나가 길어지는 만큼 피로감은 높아지고 삶은 위축된다. 숨이 턱턱 막히기는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 문화예술은 그 시대를 이겨내는 힘이 었다. 그리고 그 문화예술을 지탱하는 힘은 객석에서 나왔다. 늘 그래왔다. 당신과 나는 하나라는 이심전심이랄지 합심이 종국에는 코로나를 물리칠 것이다. 조금만 더 참자.



고대 그리스 올림픽 선수의 복장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 1 <육상선수를 위한 양포라>
BC 530년경, 테라코타, 높이 62.2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 2 미론, <원반 던지는 사람>
BC 450년경의 청동 조각을 본뜬 로마의 대리석 복제품,
H. 155cm, 로마 국립박물관 소장
- 3 <쿠로스>, BC 590-580년, 대리석, 높이 194.6cm,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2021년 도쿄 올림픽이 뜨거운 8월에 열렸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 년이 미뤄졌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크고 작은 걱정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래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선수들은 그동안 같고닮은 자신의 기량을 선보였다. 알다시피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잠시 싸움을 멈추고 함께 운동으로 겨루며 벌이던 평화의 축제다. 그래서 매회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에서 성화를 채화(採火)하고,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인 마라톤은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에서 기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 올림픽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경기 종목뿐 아니라 경기장의 분위기 역시 현대의 올림픽과 유사했을까?

고대 그리스 올림픽의 복장 규정

현대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인들이 모여 함께 운동으로 경쟁을 하면서도 화합하는 자리이다. 물론 이번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함께 즐기는 축제로서는 약간 맥이 빠졌지만, 예전의 올림픽들을 회상해보면 각 나라의 특성이 잘 드러난 개·폐회식도 볼만한 구경거리였다. 여러 경기를 통해 승리의 축포를 울리기도, 패배의 아픔을 함께 느끼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역시 축제의장이었다. 특히 올림포스 신 중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위한 축제가 함께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동안 어떠한 다름이 있었더라도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운동을 겨루면서 같은 신을 믿고 같은 언어를 쓰는 헬레네스(Hellenes)라는 문화적 자긍심을 가졌다. 이렇게 평화를 위한 시간이라는 점은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있었다.

물론 경기 종목이 달랐다. 이번에 동메달을 처음으로 딴 ‘근대 5종’과 같은 경기도 근대 올림픽이 생기면서 처음 생긴 종목이기도 하니 말이다. 그 외에도 전체적인 분위기의 차이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었다. 무엇보다 모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남성’이었다. 또한 선수뿐 아니라 관람객도 남성이었다. 우리는 흔히 고대 그리스를 모든 시민이 평등한 선거권을 가진 민주주의 사회라 생각한다. 그래서 실제로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나 관람객의 자격은 그리스의 ‘시민’이었다. 그런데 왜 여성은 들어갈 수 없었을까. 그것은 선거권을 가진 시민의 자격이 바로 다른 민족이 아닌 그리스인인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 혈통의 남성만이 시민이었



2



3

고, 정치를 비롯한 중요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다만 농사일이나 집안일 등은 노예나 여성의 몫이었다. 이들은 그리스의 시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올림픽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였다.

더불어 또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복장 규정이다. 현대 올림픽에서는 종목에 따라 유니폼이 다르다. 종목의 특성에 따라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재와 디자인을 사용한다. 몇 해 전에는 전신 수영복으로 수영 기록이 너무 높아지자 이에 대한 금지 조항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만큼 경기복은 선수의 역량을 높여주기도 하고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복장 규칙이 단 한 가지였다. 그것은 바로 '실한 오라기도 걸치지 않는다'이다.

그 연원에 대해서는 한 선수가 달리기 경기를 하다가 바지가 걸려서 벗겨지자, 그냥 벗고 뛰었지만 결국 승리했기에 그 의지를 기리고자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잘 단련된 신체를 가진 남성에 대해서 칭송했다는 것이다. 성적인 매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체를 가진 것은 올바른 정신을 가졌다는 의미가 되었기에 그의 됴됨이에 대한 칭송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의 조각상은 올 누드다. 미론이 만든 것을 로마시대에 복제한 <원반 던지는 사람>²의 경우에도 원반을 던지기 직전에 온몸에 힘을 응축한 느낌을 사실적이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당시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면, 그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상으로 남겨서 경기장에 설치해두었다. 요즘으로 치자면 뉴스에 대서특필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듯 훌륭한 선수의 단련된 신체를 표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른다. 게다가 운동경기 자체를 옷을 입지 않고 했으니 누드의 조각상으로 남는 것 역시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조각상 역시 마찬가지였다. 제의를 위해 만들어진 남녀 조각상인 쿠로스(Kuros)³와 코레(Kore)⁴ 역시 두터운 옷을 입고 있는 소녀인 코레와 달리 소년인 쿠로스는 옷을 입고 있지 않다. 마치 올림픽 선수들



4 <코레>, BC 530년,
대리석, 높이 121.9cm,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소장

처럼 말이다. 이는 기원전 7세기 전후부터 등장하는 아르카익 양식의 조각으로, 이집트 문명에 영향을 받아 경직된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후 그리스에서는 점차 자연스러운 인체 묘사와 동세를 가진 방식으로 조각 기술이 발전하였다.

비록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신은 여신인 비너스였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비너스상조차도 하반신을 옷으로 가렸다. 그리고 신전을 장식하는 조각에서도 여성의 신체는 소위 ‘물에 젖은 듯한 옷’으로 가려서 표현하였다. 반면 올림포스에서 가장 잘생긴 남신 중 하나인 아폴론은 망토를 두르고 있지만, 멋진 몸은 그대로 드러낸다.

현재 바티칸 미술관에 소장되어있는 일명 <벨베데레의 아폴론>⁵도 신답게 균형 잡히고 이상적인 신체를 갖고 있다. 이 작품은 기원전 330년경 레오카레스(Leochares)라는 조각가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 조각을 고대 로마 시기에 대리석으로 복제한 것이다. 신화 속 엄친아와 같이 완벽한 신인 아폴로가 왼손에는 활을 들고 사냥에 나가는 듯한 자세이다. 이 아폴론 상에 대해 19세기 독일의 미술사학자 빈켈만(Johann Joachim Winckelmann, 1717-1768)은 완벽한 균형에서 오는 ‘고귀한 단순과 고요한 위대’가 드러나고 절제하면서도 강렬한 형식이 나타나는 예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남성의 신체를 표현한 것은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리스인들은 여성의 몸보다 남성의 몸이 더 아름답고, 오히려 여성의 신체는 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누드화가 여성의 몸인 것과 달리, 고대 그리스의 어떠한 조각상 중에도 여성이 누드의 모습인 것은 없다. 그렇게 보면 누드는 곧 여성이 벗은 몸이라는 생각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한다.

건강한 신체의 아름다움

아름다운 남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미소년인 가니메데스(Ganymedes)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 별자리 중 물병자리가 된 가니메데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독수리로 변신한 제우스에게 납치되어 올림포스에서 신의 음료인 넥타르를 따르는 역할을 맡았다.⁶ 이러한 성인 남성과 어린 미소년 간의 사랑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름다운 사랑

- 5 <벨데데레의 아폴론>
120-140년경 로마시대 복제품,
대리석, 224×118×77cm,
이탈리아 바티칸시티 바티칸 미술관 소장
- 6 루벤스, <가니메데스의 납치>
1611년-1612년, 캔버스에 유채,
203×203cm,
오스트리아 슈바르첸베르크 궁 소장

으로 여겨졌다. 플라톤은 <향연(Symposion)>에서 성인 남성과 소년 간의 사랑을 ‘덕을 키워주는 에로스’로 평가한다. 실제 고대 그리스의 시민인 남성과 소년은 마치 멘토와 멘티처럼 가르치고 배우며 사랑 즉 에로스를 이루어나기도 했다. 서로 지혜를 나눌 뿐 아니라 신체적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가꾸어나갔다. 더 나아가 용맹하기로 유명했던 테베의 신성 부대는 150쌍의 동성 연인으로 이루어져, 희생과 단결을 통해 강한 힘을 가졌다. 이렇듯 남성의 건강한 신체를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교육 시설인 ‘김나시온’이 발달하기도 했다. 김나시온은 종합 운동시설이자 교육의 장이었던 곳으로, 체조, 권투, 씨름 등 다양한 운동을 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단련한 남성들은 성인이 되면 성숙한 시민이 되고, 전쟁이 나면 군인으로서 참전하기도 했다. 김나시온의 교육이 바탕이 되어, 고대의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 것이다.

2021년의 올림픽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기량을 뽐냈다. 고대와 현대의 올림픽은 그 시대도 분위기도 다르지만, 최선을 다한 경쟁을 통해 화합을 다지고 운동을 통해 정신적인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기본적인 관점은 동일하다. 이렇듯 치열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올림픽을 무사히 마친 선수들에게 늦게나마 박수를 보낸다.



북적이고 아팠던 천일간의 기억들 임시수도기념관

박나무 자유기고가



“라떼는 말이야”의 지존을 꼽는다면 단연코 6·25 한국전쟁 아니겠는가.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하기까지 만 3년이 넘도록 벌어진 잔인한 비극의 전쟁을 겪은 분들이 아직은 정정 하실 때 그 회고담이라면 아프지만 들어드려야지 싶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서울을 빼앗긴 정부는 대전으로 다시 대구로 옮겨 다니다, 결국은 그해 8월 18일 부산을 임시수도로 정한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힘을 얻어 중국 톈진까지 전선을 밀고 올라가며 역전한 것으로 판단 해 서울로 돌아간 대통령과 정부는 이내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고 만다. 부산으로 온 건 대통령과 정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피란민들도 함께였다. 그 겨울의 1·4 후퇴는 얼마나 춥고 배고팠을까. 부산은 그렇게 내려온 피폐한 동포들을 끌어안아 준 작지만 따뜻한 도시. 부산은 약 천일 동안 임시수도였다.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언덕배기로 발길을 잡으면 임시수도기념 거리가 이어진다. 유엔 참전 16개국의 국기와 피란시절 사진들이 전시된 계단을 오르면 임시수도기념관이 자리잡고 있다. 1926년 건립되어 100살을 바라보는 건물이 그것인데, 일정시대 경상남도 도지사의 관사로 쓰기 위해 지어졌다고 한다. 임시수도가 부산으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대통령 관저, 그러니까 경무대 역할을 했다. 당시 로선 울타리가 있고 대통령이 머물며 경호를 받기에 적절한 건물로는 유일했다고 전해진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정부 각료와 국내외 인사들을 접견하고 국정을 판단했다. 국회는 문화극장과 부산극장, 경남도청 무덕관 등을 빌어 국회의사당 삼았다. 동아대학교 국제관 자리가 옛 경남도청 무덕관이었고,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은 당시엔 정부종합청사로 쓰였다. 전쟁이어도 정부는 일을 해야 했고, 국회는 극장과 강당에 모여서라도 제 할 바를 찾았다.

대통령 관저. 지붕은 기와, 외벽은 서양식 붉은 벽돌로 쌓았는데, 내부는 일본식 다다미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얼굴은 한국인인데, 몸은 서양인, 머릿속은 일본인이랄까. 이런 건물을 허물지 않고 역사를 고증하는 기념관으로 쓴 것은 참 좋은 판단이지 싶다. 1983년에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옮겨가면서 남겨진 것을 부산시가 매입했다고 한다. 이 오랜 도시에 100년을 바라보거나 넘는 건물이 귀하다는 게 아쉽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터, 후대에 남겨서 그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당시의 응접실과 화장실, 거실과 서재, 내실, 주방 등을 그대로 재현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실물과 같은 크기의 인형으로 서재에 앉았는데, 그 생생함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떨어지는 그 목소리로 말을 건네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경비실로 쓰이던 곳은 증언의 방으로 꾸렸는데, 한국전쟁 때 특공대원으로 참전했던 이정숙 선생의 전쟁담을 녹음된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

임시수도기념관의 또 다른 건물 하나는 상설전시관으로 옛 부산검찰청 검사장 관사. 당시 피란민의 생활상을 보여주기 위해 판잣집과 물지게 등이 재현되어 있고, 전쟁 중에 쓰인 군수품과 포스터, 노트 등이 전시되어 있다. 임시수도 부산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 그것을 보도하는 사진과 기록물들이 잘 전시되어 있고, 실제로 입고 쓰고 마시고 먹었던 각종 물품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임시수도 지정 7주년을 맞이한 8월 18일부터는 <전화戰禍에서 재건再建 부흥復興으로>라는 이름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부산이 임시수도로 역할하며 전쟁의 참화를 딛고 재건과 부흥을 도모하던 과정을 당시의 자료와 유물들로 돌아보고 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이곳을 찾았다면 말로만 듣던 옛이야기가 참 교육으로 살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우리가 사는 부산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연과 역사를 품은 유서 깊은 도시임을 아로새겨야겠다. 타 시도의 시민들이 더 많이 찾는다든 이곳이 부산시민들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 되길 바라본다.

- 관람시간 : 오전 9:00~오후 6:00(월요일 휴관)
- ※ 관람예약(museum.busan.go.kr/monument)
- 문의 : 임시수도기념관 051-244-6345



INVITATION TO THE ARTS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1 뮤지컬 **광화문연가**



●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故 이영훈 작곡가의 명곡들로 꾸민 주크박스 뮤지컬 '광화문연가'가 부산을 찾는다.**

지난 2017~2018년 흥행 신화를 일으키며 단 두 시즌 만에 20만 관객을 돌파한 뮤지컬 '광화문연가'는 1980~90년대 격변의 시기, 그 시절의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사랑이야기를 소재로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감성으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인생 플레이스트를 선사한다.

뮤지컬 '광화문연가'는 초연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팝 발라드' 장르를 개척한故 이영훈 작곡가의 명곡들이 무대화된다는 점에서 관객과 평단의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작곡가 이영훈은 '난 아직 모르잖아요를 필두로 '휘파람', '소녀'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며 시적인 가사와 서정적인 발라드로 팝 발라드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1987년 무려 285만 장이 판매되면서 당시 최다 음반 판매기록을 기록했던 4집 음반에는 '사랑이 지나가면', '이별이야기', '그녀의 웃음소리뿐' 등 그야말로 '발표는 곧 히트'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며 그 해 골든디스크 대상/작곡가상을 수상하고 최고 작곡가로 우뚝 섰다. 이후 자신의 히트곡들로 구성된 뮤지컬 '광화문연가'를 준비

하던 중 대장암 진단을 받았던 이영훈은 병세가 악화되던 와중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으나 2008년 그토록 원하던 뮤지컬은 미완으로 남겨둔 채 49세의 젊은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다. 그의 음악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유, 오혁, 규현 등 당대 내로라하는 가수들의 리메이크를 통해 영원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무대는 더욱 화려해진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인 중년 명우 역에는 최정상 보컬리스트 윤도현과 최근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열연을 펼친 엄기준, 그리고 따뜻한 감성과 부드러운 음색의 강필석이 함께한다. 상상 속의 인물로 '젠더 프리 캐스팅(혼성 캐스팅)'으로 화제가 된 월하 역에는 드라마 '모범택시'에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인 차지연, 태생부터 뮤지컬 배우인 짜릿한 가창력의 김호영, 그리고 '과거 명우'에서 '월하'로의 변신을 보여줄 성규가 찾아온다. 여기에 2017년부터 '광화문연가'와 함께 해온 고선웅 작가, 이 지나 연출, 김성수 음악감독의 손길이 더해져 그야말로 최고의 배우와 창작진이 만나, 최상의 하모니를 선사한다.

일 시 9월 11일 토요일 오후 3:00, 7:30, 12일 일요일 오후 2:00, 6:3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5회 정기연주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열리는 부산시립청소년 교향악단 제65회 정기연주회에서는 가을이면 떠오르는 작곡가 브람스의 작품세계로 안내한다.

고전적 낭만주의자라 불리는 브람스는 19세기 후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음악가 중 한 사람이자 동시대 지휘자 한스 폰 뷔로부터 바흐, 베토벤과 더불어 '3B'로 칭해졌다. 고전주의다운 형식 체계를 지키면서 낭만주의다운 정서를 결합한 그의 음악은 당대 작곡가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순수하고 소박하여 사람의 마음을 더 끌리게 한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리더십과 작품에 대한 뛰어난 해석력을 지닌 지휘자 강석희가 객원지휘하고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악장 신호은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 자신이 '웃는 서곡'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밝은 분위기의 '대학축전' 서곡을 시작으로 브람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 '바이올린 협주곡'과 그의 첫 번째 교향곡인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준다.

경희대학교 교수로 있는 객원 지휘자 강석희는 서울대학교 작곡과와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악원 지휘과,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지휘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지휘연구원

에 발탁되면서 본격적인 지휘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오페라를 비롯해 고전, 낭만, 현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을 소화해 내는 강석희는 그동안 헝가리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독일 뉘른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루마니아 올테니아 주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등 유수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으며,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전주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협연자 신호은은 이번 무대에서 베토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는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준다. 부산예술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과 2차례 협연무대에 선 바 있는 신호은은 부산음악인 시리즈 '라이징스타'로 선정됐으며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콘체르토 컴피티션 아티스트 부문 3위에 입상한 바 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독일 교향곡 전통'에 매우 충실한 작품으로, 브람스만의 우수에 젖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준다.

일 시 9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MBC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8회 정기연주회 합창



-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베토벤 교향곡 '합창'으로 희망을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베토벤 교향곡 '합창'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송년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면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대표적인 시즌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는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 코로나19 종식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베토벤이 오랜 세월을 걸쳐 작곡한 역작이자 그의 마지막 교향곡이기도 한 교향곡 제9번 '합창'은 특히 사랑과 평화, 환희를 주제로 한 실러의 시를 통해 작품 속에 무한한 인류애와 환희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오늘날에도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교향곡'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그리고 소프라노 박은주,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국윤종, 베이스 전승현이 솔리스트로 출연, '합창'의 감동을 전해준다.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박은주는 에리카 쿼트 성악콩쿠르 1위, 룩셈부르크 국

제 콜라투라 성악 콩쿠르 3위 등을 수상했으며, 2003년 노트라인 베스트 팔렌 주 최고의 소프라노, 2009년 브레멘, 함부르크 주 최고의 소프라노에 이어 2010년에는 Frankfurt Allgemeine에서 올해의 'Discovery'로 선정된 바 있다. 메조소프라노 백재은은 2005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국제콩쿠르 입상, 2005년, 2006년 슈리브포트 오페라단 올해의 성악가상, 2009년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신인상 등을 수상했으며 국립오페라단 '카르멘' 주인공 역으로 국내 무대에 데뷔한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테너 국윤종은 KBS 콩쿠르 우승, 고태국 콩쿠르 대상, 스페인 빌바오 국제 콩쿠르 3위, 프랑스 마르세이유 국제 오페라 콩쿠르 우승, 스위스 제네바 국제 음악콩쿠르 1위 없는 2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국내외 주요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베이스 전승현은 서울대학교 재학 중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국제 성악콩쿠르 2위 입상으로,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에서 베이스 주역으로 데뷔한 후 세계 유수 극장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했으며, 2011년에는 독일정부가 수여하는 '캄머쟁어(궁정가수)' 작위를 수여받았다.

일 시 9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1 시민뜨락축제



- (재)부산문화회관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야외무대축제 '2021 시민뜨락축제'가 9월 24일부터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2017년 (재)부산문화회관과의 통합기념으로 시작된 '시민뜨락축제'는 부산시민회관이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일상적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왔다. 특히 올해는 도심 속 작은 문화축제를 지향하는 '어반 피크닉: 힐링 마이 라이브(Urban Picnic: Healing My Life)'를 컨셉으로, 지난 상반기에 이어 매주 금요일 낮시간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시민뜨락축제 첫 날인 9월 24일에는 클래식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고품격 5인조 앙상블 '블루앙상블'과 대중을 사로잡는 K-POP 및 스토리가 있는 창작안무를 선보여온 혼성 전문댄스팀 '룩스가' 무대에 선다. 10월 첫 주 금요일에는 장르의 경계없이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퓨전국악밴드 비원'과 'Project A'가 시민들과 만난다. 'Project A'는 탭댄스와 재즈락댄스, 락킹댄스가 협업하여 다양한 음악을 재해석하는 새

로운 컨셉의 퍼포먼스 댄스팀으로, 음악과 어우러지는 신나는 무대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10월 8일에는 가장 한국적인 소리로 세계를 노래하는 '얼터너티브 국악그룹 초아'와 부산 유일의 스페인 정통 플라멩코팀 '알싸께또마 부산플라멩코'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알싸께또마(arsa qué toma)'는 '올레(Olé)'와 같은 플라멩코의 대표적인 추임새로 '얼씨구 좋다 힘내라'는 음원의 뜻이 담겨있다. 10월 15일 '이끌림 앙상블', '어쿠스틱 나무의자'의 무대에 이어 시민뜨락축제의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부산시립합창단과 '창작연희 The늬'의 무대가 펼쳐진다. 하프, 첼로, 플루트로 구성된 '이끌림 앙상블'은 그동안 클래식을 비롯해 뉴에이지, 크로스오버 등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곡으로 관객들과 만나왔으며, 통기타와 하모니가 잘 어울리는 남성듀오팀 '어쿠스틱 나무'는 지난 2005년부터 백혈병 어린이 돕기 자선공연을 꾸준히 가져오고 있다. 무형문화재 이수자, 전수자들로 구성된 '창작연희 The늬'은 영남지방 전통예술을 넘어서 새로운 시도, 기발한 도전으로 전통연희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일 시 9월 24일(금)-10월 22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2:20 장 소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미운오리새끼



연출 김지용

- 2021년 올 한해 ‘가족에게(to my family) 가족으로부터(from my family)’라는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통해 ‘가족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온 부산시립극단이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뮤지컬 ‘미운오리새끼’로 관객과 만난다.

‘미운오리새끼’는 수많은 안데르센 동화 중에서도 특히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오리 무리 속에 섞인 유난히 크고 못생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무리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받다가 우연히 자신이 오리가 아닌 아름다운 백조임을 알게 되면서 백조의 무리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안데르센의 동화들은 다양한 은유와 상징을 품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미운오리새끼’ 역시 단순한 아이들을 위한 동화라고 하기에는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지독히 가난했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자신의 신분과 주변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강했던 안데르센의 자전적 이야기로 여겨지는 만큼 작품 속 이야기가 뽐어내는 감성의 깊이는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부산시립극단의 이번 작품은 ‘미운오리새끼’가 가진 여러 다양한 해석 중에서도 전통적 해석 중 하나인 ‘자아 찾기’를 현

대적 시각으로 풀어본다. 이번 무대에서 주인공 ‘미운오리새끼’는 환골탈태하여 ‘백조’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백조’이면서 ‘오리’인 존재로 형상화한다. 이런 해석에 따라 원작을 새롭게 각색했으며, 작품에 등장하는 노래 선정과 작사에도 이러한 주제를 크게 강조했다. 특히 노래 ‘백조면서 오리’의 노랫구절인 ‘백조로 태어났지만 오리가 되었어요’, ‘우린 서로 다르지만 결국 모두 같아요’는 이번 작품의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가사이다.

부산시립극단의 ‘미운오리새끼’는 어린이전용극장인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에서 10월 23일까지 한달간 상연된다.

원작 안데르센 각색 신서영 작사/연출 김지용

작곡 진소영 음악감독 전진 반주 이현주, 이소진

출연 안예은, 박인화, 오희경, 이혁우, 강승환, 강대현, 김신효, 김은희, 김은옥, 염지선, 이현주, 황창기, 이승환, 이수연, 서보기

일 시 9월 28일(화)-10월 23일(토) 오전 11:00(평일 단체공연, 일요일 공연없음)

장 소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에서

한국 현대사진 거장
임응식 작품展

부산에서 서울로

한국 근대사진의 선각자, 리얼리즘 사진의 선구자로 불리는 故 임응식 (1912-2001) 작가의 작품전이 9월 10일부터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부산 출신의 임응식 작가가 태어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이자 서거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지난 1973년 부산시민회관 개관기념전으로 열렸던 그의 회고전에 이어 반세기 만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전시로 더욱 더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 사진의 선구자

서구 동대신동에서 태어난 임응식은 와세다중학교 입학선물로 카메라를 받으면서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임응식은 1933년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부산여광사진구락부에 가입했으며, 이듬해 일본 사진잡지인 '사진 살롱'에 출품한 작품이 입선되면서 사진작가로 등단했다. 일본에서 체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임응식은 강릉, 부산체신국에 근무하면서 사진작업을 이어나갔고, 여러 사진기술을 습득하면서 1946년에는 부산에서 사진현상소 '아르스(ARS)'를 운영하기도 했다. 임응식 작가를 한국 사진의 선구자라 불리게 된 데는 그가 사진에 있어 '최초'라는 수식어와 더불어 사진의 이론적 체계와 예술가로서의 지위를 확립시키는 데 많은 공헌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최초로 한국사진작가협회를 창립했으며, 이듬해인 1953년에는 국내 사진작가로서는 최초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사진을 가르쳤다. 또한 198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연 최초의 사진작가로 이름을 올렸으며, 2011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서울로

관에서 그의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 열리기도 했다. 사진가로 서뿐만 아니라 교육자이자 비평가로 한국사진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임응식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60년 서울특별시 문화상, 1971년 대한민국 문화 예술상, 1978년 현대 사진 문화상, 1989년 대한민국 금관 문화훈장 등을 수훈했다.

‘생활주의 리얼리즘’ 주창

임응식 작가의 작품 경향은 보통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일제강점기에는 신흥사진을 실험하면서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소재를 담은 소위 ‘살롱 사진’과 ‘회화주의 사진’을 주로 찍었다. 이후 한국전쟁 당시 종군 사진기자로 참전하여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사회적 문제와 삶의 현장을 주목한 임응식은 ‘생활주의 리얼리즘’을 주창하며 1950년대 한국 사진계의 주류를 형성했다. ‘생활주의 리얼리즘’이란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 현장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는 사진가로서 자신의 임무는 “아름다운 대상을 찍는 게 아니라 역사의 현장을 기록해 남기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사진을 기록물의 차원에서 예술 영역으로 끌어올린 작가로 일명 ‘영상 시인’으로 불리기도 했던 임응식은 한국 전쟁 이후 50여년간은 서울의 명동을 꾸준히 작품 속에 담았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연작과 한국의 고건축물 연작은 사진집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부산에서 서울로’ 그 때 그 시절

‘부산에서 서울로’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부산에서 활동하던 1946년부터 서울에 정착한 1960년까지 작품 42점을 소개한다. 하얀 한복을 입고 지팡이를 든 채 전차 앞을 건너는 노인의 모습을 담은 ‘전차와 노파’(1947년, 부산), 임응식 작가를 해외에 알린 유명한 사진이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작품 ‘나무’(1950년, 부산), 그리고 누가 찍었는지는 몰라도 누구나 한 번쯤 봤음직한 그의 대표작 ‘구직(求職)’(1953년, 서울) 등 거장의 앵글을 통해 지금은 잊고 지내는 척박했던 ‘그 때 그 시절’을 되돌아본다. 특히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서울 명동, 남루한 야전잠바 차림에 벵거리를 꼭 눌러쓰고 ‘求職’이라는 한자를 가슴에 매달고 서 있는 구직자를 포착한 작품 ‘구직’은 전쟁 직후의 삭막함을 알리는 한 시절의 풍경을

가감 없이 전해주면서, 그 이전까지 유행해 온 사진계의 ‘살롱사진’과의 결별을 알리는 동시에 리얼리즘의 공식적 등장을 알리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이번 전시 기간에는 1940년대 부산의 풍경을 담아낸 사진작가 임응식의 발자취를 찾아 작품 속 과거와 대조되는 변화된 부산의 현재 모습을 오늘날 청년작가들의 시선으로 담아낸 ‘다른 시대 같은 연령의 앵글’전이 2층 전시실에서 함께 열린다. 임응식이 남긴 작품 속 과거의 부산 모습을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전시로, 경성대학교 사진과 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한다.

이 밖에 전시기간 동안에는 축하공연과 강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전시 시작일인 9월 9일에는 임응식 작가가 부산에 활동하던 1950~60년대 대중가요를 들려주는 부산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과 ‘임응식의 생활주의 사진_한국 리얼리즘 사진의 출발’이라는 주제로 동주대학교 박희진 교수의 강연이 펼쳐진다. 9월 24일에는 부경근 대서료연구소 김한근 소장의 ‘임응식 사진에 나타난 부산, 장소의 기억’에 이어 10월 6일에는 소설가이자 경성대학교 조갑상 명예교수의 ‘임응식 사진 속 전후 부산의 문학’, 13일에는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김기수 교수의 ‘도시의 기억재생 장치, 기록사진’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전시와 모든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



9. 10^④ ~ 10. 24^①일

부산시민회관 1, 2층 전시실 / 무료(시간예약제 관람)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6:00(매주 월요일, 9/21일 휴관)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시간예약제 실시로,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citizen/main)를 통한 사전예약 필수

생활주의 리얼리즘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전쟁

다시 부산시민회관으로 돌아온

임응식 작품전을 기획하며

강재구 와이아트갤러리 대표, 임응식작품전 기획자



구직(서울, 1953년)

부산시민회관은 1973년 개관하여 50년을 바라보고 있는 전국 최초의 공공문예회관이다. 임응식 사진전은 당시 부산시민회관의 개관기념 전시(1973년)로 기획되어 서울(1972년)에 이어 두 번째 회고전으로 개최된 바 있다. 이후 반세기가 지나 그 때 그 장소인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시민들과 다시 만나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는 임응식 작가가 부산에서 태어난지 110주년이자 서거 20주년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하겠다. 거장의 앵글을 통해 부산시민의 삶과 애환을 들여다보고, 생활주의 리얼리즘 작가의 시선으로 표현되는 한국전쟁 당시 부산의 사진을 통해 피난민들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임응식은 1912년 부산 대신동에서 태어난 부산의 인물이다. 중학교 입학선물로 받은 사진기로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된 후 해방 전까지 살롱사진 위주로 작품 활동을 하다 1950년 한국전쟁의 종군기자로 참여하면서 현실의 모습을 직면하고 생활주의 리얼리즘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거장의 앵글을 통해 부산시민과 피난민들의 애환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하였고, 이는 1950년대 한국 사진계의 주류로 형성되기도 했다. 그의 작품인 '구직(求職)'은 생활주의 리얼리즘을 극단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전후(戰後)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임응식이 주류를 이끌기 전 한국 사진의 성향은 대부분 기록사진 위주였다. 임응식 또한 해방 전 일본의 영향으로 살롱사진작가로 활동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미군 군무원 소속으로 한국전쟁을 기록하는 보도사진작가의 길을 걸었다. 회화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살롱사진을

찍는 작가였던 그는 전쟁으로 파괴되는 고국을 보며 처음에는 한 장의 사진도 찍을 수 없었다고 한다. 부서지고 파괴된 삶의 비극을 목도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한 그의 기록들은 단순한 보도와 기록용이 아닌 살롱작가로서의 시선이 함께 담겨 구도와 빛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었다. 미군에 소속되어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 전쟁의 황폐함을 찍기 시작한 임응식의 작품은 피란민과 시민들의 삶을 앵글에서 놓칠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작가로 변화했다.

전후(戰後) 임응식은 서울 명동을 거점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일상 모습을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기록하였다. 그는 단순히 작가의 길을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하나의 예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전에 사진 분야를 만드는 데 노력하였고, 서라벌예대와 중앙대학교에 사진학과를 설립하는 등 수많은 사진학도들이 배출되는 데 기여하였다. 과히 한국 사진계의 선구자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임응식 작품전 <부산에서 서울로>는 한국전쟁 당시 부산의 상황과 피난민들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임응식은 한국사진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활동해온 사진가였으며, 그의 활동 자체가 한국사진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그가 찍은 일상의 사진들이 모여서 그의 역사와 삶이 되었으며, 그의 일상을 통해서 사진이 읽히고 한 사람의 삶이 읽히고 사진의 힘이 읽히곤 한다. 그의 이번 작품전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한국사진사를 되짚어보며 지나온 역사의 소중한 가치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청년시절 부산, 사진작가 임응식의 시선을 따라 현재의 청년사진작가들이 보고 느끼는 2021년의 부산을 촬영한 사진전 '다른 시대 같은 연령의 앵글'이 2층 전시실에서 함께 진행된다. 임응식이 남긴 작품 속 과거의 부산 모습을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전시로, 경성대학교 사진과 교수 및 학생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1940년대 부산의 풍경을 담아낸 사진작가 임응식의 발자취를 찾아 작품 속 과거와 대조되는 변화된 부산의 현재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소개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1940년대의 청년작가 임응식의 시선과 함께 2021년 청년작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학생들의 시선으로 보는 부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현대사진의 거



나무(부산, 1950년)

서울로

장 임응식 사진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진가로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선사한다.

이번 임응식 작품전 <부산에서 서울로>는 사진가 임응식의 작품을 통해 '그때 그 시절' 속 한국전쟁의 폐해와 피난민들의 척박한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부산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흥미로운 전시가 될 것이다.

사람 냄새가 물씬한 정공법의 무대

공연예술 전위
‘고모령에 달 지고’

◇ 김문홍 연극평론가

이번 공연은 지난해에 타계한 전승환 연극연출가 추모 1주기 기획공연으로 이루어졌다. 창작극 <고모령에 달 지고>(이상용 작, 박현형 연출, 60분, 2021. 8.13~15,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는 정통 사실주의 연극이다. 옛 마산에 실제로 존재했던 선술집 ‘고모령’을 배경으로, 그곳을 단골로 드나드는 화가 ‘땡초’(권철 분)와 주모 ‘문여사’(허종오 분)의 사람 향기 물씬 나는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 시대의 위선적 풍경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티격태격 말씨름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 위엄을 지키는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작품이다.

지난해 부산연극협회 주최의 ‘작강연극제’에 참가했던 초연에 이어 이번은 두 번째 공연이다. 극적 서사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한두 장면이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이 작품에 출연한 배우 권철과 연출을 맡은 박현형은 고인이 연출했던 작품에 단골 배우로 출연했던 후배들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한 장면이 삭제된 것과, 문여사의 자폐아 딸인 ‘희아’(임선미 분)의 대사와 연기 형식이 새롭게 해석되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연에서는 주모 문여사가 첫 장면에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살풀이 춤을 추었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관객의 상상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가 되었다. 그리고 지난번 공연에서는 자폐아 딸인 희아가 시종일관 말이 없다가 마지막 장면에서만 ‘엄마’라는 소리를 했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구체적 의미는 없지만 감정이 실린 구음을 장면마다 했다는 점이다. 또한 엄마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녹음된 소리로 표현하는 시도를 했다.



무대 디자인과 장치도 크게 달라졌다. 지난번에는 소극장인 점을 고려하여 중요한 오브제인 둥근 달이 조명으로 투사되었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역시 무대의 크기를 고려하여 무대 후면 좌측 상부에 둥근 달을 만들어 고정시키고 있다. 그리고 땡초 화백이 그렸다는 각종 그림 액자가 바닥에 놓이거나 걸려, 이곳 선술집을 드나드는 예술인들의 체취가 풍기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그림들은 주모의 딸인 희아가 그림을 그리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희아의 걱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중요한 오브제가 되기도 한다.

이 작품은 시종일관 땡초 화백과 주모인 문여사의 대사와 행동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두 사람은 때로는 서로의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티격태격 입씨름으로 갈등을 표현하는가 하면, 때로는 보이지 않는 서로의 속내를 질펀하게 쏟아 내기도 한다. 두 사람은 주로 선술집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들의 대사를 통해 지난날의 회한이 드러나고, 세상사 외 그 속의 인간들이 벌이는 위선적인 행동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하고, 그들의 주고받는 대사를 통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 다양하게 펼쳐지기도 한다. 그래서 권철과 허종오의 대사는 단순한 감정과 정서 표현의 도구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 풍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극적 서사에 리듬과 템포를 부여하는 추동력이 되기도 한다.

두 배우의 화술은 이 작품에서 아주 중요한 행동이 되기도 하고, 극적 서사에 리듬을 부여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 그들의 대사는 서로의 상처를 위무하는 연민과 사랑이 되기도 하고, 세상사와 표리부동한 인간사를 질타하는 은유적 상징이 되기도 한다. 이 작품은 특별한 외적인 행동이 없이 오직 대사에 의해서만 극적 서사가 진행되는 만큼 연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사의 탄력적인 리듬에 의해 행동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대사에 의해 갈등이 표출되고 반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권철과 허종오는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대사를 통해 관객들의 상상력 속에 구체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보인다. 한 마디 대사도 없이 오직 표정과 구음으로만 감정을 표현하는 입선미의 연기 내공도 아주 단단하다.

연극 연출가 故 전승환은 50여 년의 연출 작업을 통해 일관된 철학을 견지해 보였다. 그는 항상 정공법으로 접근하는 욕심을



보여 왔다. 전승환 연출은 그의 극적 상상력과 표현 기법을 작품 전면에서 드러내고 내세우기보다는, 장면 곳곳에 스며들게 하는가 하면 어떤 장면에서건 온기가 우러나게 했다. 그는 배우들을 통한 작품의 형상화를 먼저 생각하고, 내세우고 싶어 하는 연출력은 뒤로 감추고 절제하는 겸손을 유지해 왔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작품에서는 항상 사람의 온기가 배어 있었고, 사람 사는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 왔다.

전승환은 철저한 리얼리스트였다. 고인은 무대 위의 작품에서나 무대 바깥의 인생에서나, 결코 잔피나 속임수를 부림이 없이 정공법의 자세를 유지했다. 어떤 작품에서나 휴머니즘의 온기가 배어 나오게 했다. 잔인하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도 날것의 직설법을 쓰기보다는, 모가 나거나 드러나지 않게 감추고 우회하는 표현 기법을 사용했다. 그러면서도 사석에서나 일반 예술인들의 모임에서도 결코 주눅들거나 꿀림이 없이 연극적 자존감을 고고하게 지킬 정도로 당당했다.

그의 유작이 된 <고모령에 달 지고> 역시 그러한 정공법의 무대로 일관하고 있는 작품이다. 다소 시류에 뒤처지고 있는 듯한 희곡 같지만 삶의 온기와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한 정통 사실주의 희곡에서부터, 서구적 모던함보다는 동양적 질감을 추구하는 무대 디자인과 장치, 잔피의 술수나 현학적 내세움을 풍기기보다 담백한 질감의 조명, 무엇보다도 다소 투박하지만 온기가 스며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 이 모든 것은 고인의 연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극연출가 故 전승환, 그는 비록 가고 없지만, 그가 남긴 투박한 리얼리즘의 연극정신은 무대 위에 불멸의 인장으로 찍혀 하나의 지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번 공연도 그 단초를 보여주어 다행이었다.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부산문화회관

센토챔버소사이어티 제10회 정기연주회 희망

일 시 | 9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악장 이은옥을 주축으로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센토챔버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음악을 통한 연주자와 청중의 교감을 중시하는 센토챔버소사이어티는 지난 2011년 창단 후 다양한 형태의 기획무대를 통해 부산음악계에 신선한 자극을 불러일으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는 희망의 음악회를 선사한다.

- 바이올린/이은옥, 서은아, 이현지, 박은경, 성현이, 권순지, 정명아, 신호은, 남가영
- 비올라/이성호, 권덕진, 박명훈
- 첼로/서성은, 이가은, 신윤경
- 오보에/정새롬 • 더블베이스/윤민우

2021 문화윤곽 제3회 정기공연 家長

일 시 | 9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문화윤곽 010-3120-4116



세상의 모든 아버지, 그리고 '가장'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가장을 위해 마련한 문화윤곽의 특별한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사랑의 시작, 가장의 삶, 삶의 무게, 다시 시작하는 삶 등 4개의 테마로 나누어 창작가곡 및 창작국악, 클래식, 가요, 동요 등 다양한 연주로 따뜻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각본/이철우 • 연출/권은하
- 기획/이혜경 • 작곡/권태우
- 테너/우원석, 이우정, 서지환
- 바리톤/장진웅, 안세범, 김기환
- 배우/권혁진, 박명정, 장경린
- 피아노/정은경 첼로/이지수
- 해금/나리 • 저대/안창섭
- 타악기/우정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MOTI/어디로부터

일 시 | 9월 3일 금요일 오후 8:00,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재)부산문화회관이 지난 2019년 연극 '울리우스 카이사르'에 이어 자체 기획, 제작으로 선보이는 두 번째 작품 'MOTI/어디로부터'.

부산이 낳은 걸출한 무용가인 부산시립무용단 이정운 예술감독이 연출과 안무를 맡은 'MOTI'는 'Motivation(동기)'의 준말이자 모티브를 일컫는 경상도 사투리 '모티'를 가리키는 말로, 삶의 '모티'에 선 청년들의 비상을 향한 'Motivator'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오디션 과정을 거쳐 선발된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한 Well Made Busan 작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문화회관 2021 BSCC 시네오페라 초이스 베르디 완전정복 라스칼라 아이다

일 시 | 9월 4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12세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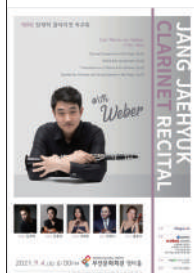
세계 각국의 유명 오페라 극장과 페스티벌의 공연실황을 생생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오페라의 거인'이라 불리는 베르디의 대표작 4편을 소개하는 '베르디 완전정복' 세 번째 상영회로, 1872년 '아이다' 초연 시 베르디 본인이 직접 지휘했던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지난 2015년 무대에 올려졌던 '아이다'를 소개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지휘자 주빈 메타와 독일을 대표하는 연출가 페터 슈타인의 만남으로 새롭게 탄생된 무대로, 아이다 역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소프라노 크리스틴 루이스의 열연으로 당시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제8회 장재혁 클라리넷 독주회

일 시 | 9월 4일 토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김태훈 010-7543-0883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이자 아베오 트리 오, 트리오 레자미 단원, 솔리스트로 관객과 소통해 온 클라리네티스트 장재혁 독주회.

2002년 서울예고 재학 중 부산음악콩쿠르 우승과 함께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고 음연으로부터 2002년을 대표하는 젊은 음악가에 선정되는 등 일찍이 그 재능을 인정받았던 장재혁은 서울대학교 재학 중 클라리넷의 본고장인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학, 석사 과정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고 파리오케스트라, 라디오프랑스 오케스트라,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등 정상급 연주단체에서 객원 활동과 유럽투어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 피아노/김재원
- 파르렛 BCMS/김동욱, 조혜운(이상 바이올린), 최영식(비올라), 홍승아(첼로)

양상블 자비에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5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양상블 자비에 010-4006-0059



예원학교와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대, 줄리어드 음대, 뉴잉글랜드 음악원 동문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유효정, 비올리스트 김규, 첼리스트 김민승, 이호찬으로 구성된 양상블 자비에의 무대.

창단 후 매년 자선음악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음악사랑을 펼쳐오고 있는 양상블 자비에에는 이번 음악회의 모든 수익금도 부산의 보육시설인 '소년의 집'에 기부한다.

-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10번 사장조
 브람스/스케르초 다단조 F-A-E 소나타
 슈베르트/현악5중주 다장조
 • 피아노/이시현

이주형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9월 5일 일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학생 50% 할인, 당일 현장 현금구매)
 문 의 | 이주형 010-2032-2211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플루트 부수석으로 활동하며 따뜻한 감성과 다채로운 음색으로 호평받는 플루티스트 이주형 독주회. 인제대학교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이주형은 2014년 부산음악콩쿠르 1위, 2015년 중앙음악콩쿠르 1위를 차지하고 금호문화재단의 금호영아티스트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심정운과의 앙상블로 플루트와 피아노의 다채로운 음색을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라벨/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코플랜드/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
 마랑마레/스페인풍 폴리아 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회 정기연주회 부산칸타타 '일향악 세계기(一響樂 世界起)'

일 시 | 9월 8일-9일 수-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2021년 야심차게 준비한 특별한 무대, 부산칸타타 '일향악 세계기'.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으로 있는 작곡가 김은혜와 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해온 시인 이청산이 작곡과 극작을 맡은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소리꾼과 성악가들이 출연,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힘들고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노래한다.

- 지휘/김종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지휘자)
- 연출/이정윤(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김정은 피아노 독주회 Franz, the Romantist

일 시 | 9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가온클래식 070-8811-0513,
 gaonclassic.com



섬세하고 탄탄한 테크닉과 다채로운 음색, 치밀한 해석을 바탕으로 청중에게 매력적인 연주를 선사하는 피아니스트 김정은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도독, 칼스루에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석사과정), 로버트 슈만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칼스루에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김정은은 AYAF 앙상블 멤버로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동아대학교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Franz' 라는 이름의 두 작곡가, 슈베르트와 리스트, 그리고 바흐의 곡을 들려준다.

- 해설/피아니스트 김진석

바리톤 시영민 독창회 Lieder Abend

일 시 | 9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시영민 010-4182-0176



강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가진 바리톤 시영민 독창회.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한스 아이슬러 베를린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한 시영민은 유학 중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필하모니, 템포드롬 등에서 연주하며 음악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바이로이트 영 아티스트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현지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시영민은 '한국음악협회 해외파견콩쿠르' 성악 부문 1위를 비롯해 부일성악콩쿠르, 대구성악콩쿠르, 중국 닝보 국제 성악콩쿠르에서 입상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만의 '리더크라이스 작품 39' 과 볼프의 '외리케 가곡집'을 들려준다.

- 피아노/황유진

김은정&김해리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프랑스 음악의 향기

일 시 | 9월 11일 토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김은정 010-2802-1672



가을의 길목에서 들려주는 피아니스트 김은정, 김해리의 듀오 무대. 김은정은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학사 및 석사, 미국 신시내티 음악대학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다수 독주회 및 실내악 무대에 서았으며 현재 고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외래교수, 인천예고 중등 예술영재원 강사로 있다.

김해리는 경원대학교(현 가천대) 음악대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미국 Amati Music Festival에서 'BFS Award'를 수상했으며, 현재 동서대학교 조교수, 한국리스트협회 서울경기지부 이사로 있다.

프로그램

드뷔시/작은 모음곡 L.65
 라벨/어미 거위 모음곡 M.60 등

안단테 더 포에트리 부산

일 시 | 9월 12일 일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9만9천원
 문 의 | 위클래식 070-4190-1289



매 시즌 K크로스오버 열풍을 일으켰던 JTBC '팬텀싱어3'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베이스 구본수, 바리톤 안동영, 테너 윤서준으로 구성된 크로스오버 그룹 '안단테'의 무대. 지난해 11월 안단테 첫 번째 미니앨범 'NO.1 The

Korea Crossover'를 발매하며 타이틀곡 '비밀의 화원'이 음원 플랫폼 '지니' 클래식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데뷔와 동시에 화제를 모은 안단테는 올해 6월 열린 '안단테 첫 단독 콘서트'에서 클래식, 크로스오버, 영화음악, 대중음악, POP 등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 레퍼토리를 선사하며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증명했다.

이번 무대는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 콘서트로, 독일 정통 리트 피아니스트 공희상과 함께 한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 전 세계 명가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5회 정기연주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일 시 | 9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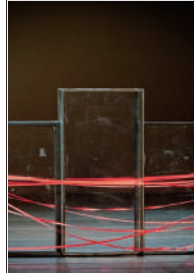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마련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5회 정기연주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섬세하고 부드러운 리더십과 작품에 대한 뛰어난 해석력을 지닌 지휘자 강석희가 객원지휘하고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악장 신효은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 자신이 '웃는 서곡'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명랑하고 밝은 분위기의 '대학축전' 서곡을 시작으로 브람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 '바이올린 협주곡'과 브람스의 첫 번째 교향곡인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준다. 지휘자 강석희는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전주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2021 현대무용단 자유 정기공연

일 시 | 9월 15일 수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현대무용단 자유 010-2610-2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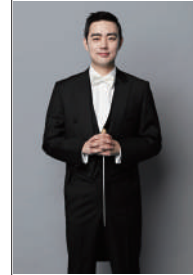


지난 1995년 창단 후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현대무용의 기초작업과 새로운 예술형식 창출에 힘쓴 현대무용단 자유의 2021 정기공연.

현대무용단 자유는 2016 제37회 서울무용제에서 우수상을 수상, 이듬해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로 선정됐으며, 2018년 부산국제무용제 국제안무가육성공연 AK21 최우수상 수상작은 2019 MODAFE 국내초청작으로 선정, 미국, 러시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국의 초청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내 몸이 원하는 진정한 파라다이스는 어디일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paradise'와 기술복제의 시대에 유랑하는 인간상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Exiles' 등 창작무대를 선보인다.

부산MBC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8회 정기연주회 합창

일 시 | 9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합창'. 특히 베토벤 교향곡 '합창'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송년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면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대표적인 시즌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는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 코로나19 종식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그리고 소프라노 박은주,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국윤중, 베이스 전승현이 '합창'의 감동을 전해준다.

부산독일가곡연구회 제59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를 사랑하시나요?

일 시 | 9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문 의 | 부산독일가곡연구회 010-4313-7113



음악의 본고장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수학하고 귀국한 부산의 음악가들로 구성된 부산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부산독일가곡연구회는 지난 1987년 창단 후 매년 2회 이상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를 개최하며 독일 예술가곡을 연구, 보급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지슈필의 절정이라 평가받는 모차르트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탈주, '마술피리' 갈라무대가 펼쳐진다.

- 연출/이창원
- 양상블/TDC 양상블
- 피아노/박소미, 정경아, 박지혜, 이요한
- 출연/박나래, 정애린, 조윤환, 조창현, 김준연, 양근화, 지광운, 윤선기, 박성희, 김정대

Homecoming to Dong-A Piano!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양상블의 밤

일 시 | 9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정은 010-2176-5563



부산 최초의 음악대학으로 그동안 부산을 대표하는 음악교육의 전당으로 빛나는 전통을 쌓아온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와 제자들이 마련하는 사제음악회.

코로나19로 모두 어렵고 힘든 시절, 아름다운 음악으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감동의 무대를 마련한다.

- 출연/정진실&김아림, 백민정&정한솔, 김예지&송정은, 박정연&허원빈, 김유진&김윤아, 김유미&최영주, 신주옥&류지수, 최지은&서혜리&박정희&김정은

The 1st Cincert 기업과 예술의 이음 콘서트

일 시 | 9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 의 | 아첸투스 010-8559-0415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과 예술의 이음 콘서트 첫 번째 무대. (주)경성에너지의 협찬으로 진행되는 이번 메세나 무대에서는 부산, 경남의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아첸투스 챔버 오케스트라와 첼리스트 이일세, 그리고 유엔평화기념관 합창단이 출연,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감동이 있는 무대로 격려와 위로를 전한다.

- 예술감독/이재성
- 지휘/임재우
- 악장/안은탁
- 협연/첼리스트 이일세
- 특별출연/유엔평화기념관 합창단(단장 한명자)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제2회 정기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콘서트 오페라

일 시 | 9월 18일-19일 토-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663-4918, 4829



경성대학교 음악학부가 마련하는 콘서트 오페라로, 파리의 고급 화류계 출신의 비올레타와 지역 대부호의 아들 알프레도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 사랑을 그린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무대에 올린다.

- 예술감독/양송미
- 음악감독/김지호
- 지휘/이기균 • 연출/이효석
- 합창지휘/심정보
- 연주/경성 심포니 오케스트라
- 합창/경성 콘서트 콰이어
- 출연/류가은, 홍승주, 정다훈, 김준석, 황인태, 조영준, 이호서, 권두루, 김승혜, 김수빈, 이신혁, 정태하 외

소프라노 정수정 귀국 독창회

일 시 | 9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정수정 010-6319-7140



호소력 짙은 음색과 풍부한 성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프라노 정수정 귀국 독창회.

국립창원대학교 음악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파르마 국립음악원과 밀라노 시립음악원 Canto Biennio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정수정은 음악에 대한 끝없는 열정으로 Arena 아카데미에서 음악코치 과정을, Mariano Comense 아카데미에서 합창지휘 과정을 수료했다.

정수정은 유학 중 한국에서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주역으로 오페라 데뷔무대를 가진데 이어 이듬해 같은 작품으로 이탈리아 부세토 베르디 극장에서 데뷔무대를 가진 후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 피아노/권수빈

2021 제1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콘서트

일 시 | 9월 25일-26일 토-일요일
 오후 1:00, 5: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특별한 무대로, 지역 및 학교 오케스트라 24개팀이 출연,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출연

강서청소년오케스트라, 드림신라색소폰앙상블,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해운대청소년오케스트라, 이안오케스트라, 가남오케스트라, 가동초등학교오케스트라, 대한한소리오케스트라, 두실초등학교오케스트라, 명륜초등학교오케스트라, 문현어울림오케스트라, 민란with오케스트라, 배산하모니오케스트라, 분포가온오케스트라, 안남초등학교오케스트라, 양보사인오케스트라, 오륙도드림오케스트라, 오봉초등학교윈드오케스트라, 옥색하모닉오케스트라, 용문초등학교오케스트라, 동향중학교오케스트라, 진영중학교오케스트라,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오케스트라, 부산공업고등학교윈드오케스트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BSCC 인문학 콘서트:향연 배우 김명곤의 풍류정당

일 시 | 9월 24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인문학적 지혜와 삶에 대한 성찰, 부산시립예술단의 감동 가득한 공연이 함께하는 금요일 브런치 타임의 지적향연 'BSCC 인문학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그동안 공연예술인으로, 행정가로, 그리고 예술경영인

으로 끊임없이 삶의 지평을 넓혀왔던 영원한 광대 김명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길을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어깨 너머로 배운 연극과 판소리로 영화 '서편제'의 판소리꾼 '유봉' 역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후 연출가와 극작가, 국립극장과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김명곤은 지금도 여전히 배우로, 연출가로 무대에 서는 동시에 5년 전

부터 벨칸토 창법에 도전하며 국악과 서양 성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날 무대에서 김명곤은 영화 '서편제'에 시나리오 작업과 주연배우로 참여하게 된 사연부터 셰익스피어 4대 비극 또는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기는 소망까지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민요와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영화 '서편제' OST 중 '천년학'(대금/한영길)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이별가'(소리/박성희, 고수/송강수)

가야금독주와 춤 '춘살'(가야금/김지현)
 국악실내악과 춤 '무화'(해금/강민정, 대금/안현영, 가야금/하지희)

- 출연/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부산시립무용단



아트뱅크코리아 기획공연 드보르작 탄생 180주년 기념연주회 Bohemian Forest

일 시 | 9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65세 이상, 장애인 및 동반 1인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서울시포니에타 악장으로 있는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전후국과 부산의 감성 첼리스트 정준수, 부산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 박정희와 권준 그리고 이윤지, 김은정, 김해리, 이진성과 바이올리니스트 이종은, 비올리스트 김규, 빛

나는 음색을 가진 플루티스트 강주희와 청아한 목소리의 소유자 테너 조윤환 등 실력있는 연주자들이 다양한 편성과 연주로 드보르작의 음악세계로 안내한다.

- 피아노/박정희, 권준, 이윤지, 김은정, 이진성, 김해리
- 바이올린/전후국, 이종은 • 비올라/김규
- 플루트/강주희 • 첼로/정준수 • 테너/조윤환

2021년 제6회 부산국악생활 문화예술제

일 시 | 9월 26일 일요일 오후 2: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국악생활문화연합회
 010-2889-0655



부산에서 활동하는 국악 분야 생활문화동아리가 참여하는 2021 부산국악생활문화예술제.

올해로 6회를 맞는 이번 예술제는 부산국악생활문화동아리들간의 화합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즐기며 소통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풍물 14개팀과 민요 8개팀, 전통춤 2개팀, 난타 7개팀, 단소 1개팀, 퓨전장구 3개팀 등 35개팀이 참가, 코로나9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신명의 장을 펼친다.

테너 김준연 독창회

일 시 | 9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문 의 | 김준연 010-8950-8136



자연스러운 음색과 풍부한 음악성으로 주목받은 테너 김준연 독창회.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도이, Roma Accademia 성악과 최고연주자과정과 Milano Masate G.Donizetti Accademia 합창지휘과, Norma IL Seminario 시립음악원 뮤지컬과를 졸업한 김준연은 이탈리아 마르티누치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이탈리아 'Spazio Musica' 제17회 국제콩쿠르, Nicola Martinucci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스페인 언론으로부터 '동양에서 온 최고의 테너'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립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김유섬,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이 함께 출연, 한국가곡을 비롯해 뮤지컬 넘버,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김경미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미운오리새끼

일 시 | 9월 28일(화)-10월 23일(토)
 오전 11:00(평일 단체공연, 일요일 공연없음)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극단이 안데르센의 동명의 동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미운오리새끼'.

'미운오리새끼'는 수많은 안데르센 동화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부산시립극단은 이번 작품에서 '미운오리새끼'가 가진 다양한 해석 중에서

도 전통적 해석 중 하나인 '자아찾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본다.

주인공 '미운오리새끼'는 이번 작품에서 '미운오리'로 환골탈태하여 '백조'로 거듭 상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백조'이면서 '오리'인 존재로 자신만의 가치를 존중한다.

- 연출/김지용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제21회 정기연주회 Music in Cinema

일 시 | 9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정은정 010-9074-1368



지난 1991년 음악대학 교수, 강사, 연주가 등 전문 피아니스트로 결성된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가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18인의 피아니스트들이 영화가 사랑한 클래식 음악, 영화를 더욱 빛낸 클래식 음악을 피아노 연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리스트/헝가리안 랩소디 제2번 다단조 S.244(영화 '툼과 제리' OST)

쇼팽/발라드 제2번 바장조 작품 38(영화 '피아니스트' OST) 등 수곡

- 연주/김혜선, 나예지, 김은정, 고정화, 권혜령, 강용우, 박이연, 이효연, 김찬이, 이수정, 이진경, 박소정, 박선아, 최지은, 서현리, 박정희, 김정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제77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일 시 | 9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고 나갈 유망주들의 실질적인 등용문인 부산시립교향악단 제77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협연자들의 학구적이면서도 뛰어난 연주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로, 특히 다양한 악기와 여러 시대에 걸친 대표적인 협주곡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나현(피아노), 권한나(트럼펫), 심채영(바이올린), 최현수(클라리넷)가 부지휘자 이민형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김나현은 동백전국음악콩쿠르 전체대상(2016), 모차르트 한국콩쿠르 창원지부 대회 고등부 대상(2021)을 수상했으며,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

음악인시리즈-음악영재' 선정 및 연주(2019), 한국음악영재교육연구회 초청 '차세대 아티스트 콘서트' 선정 및 연주(2020) 등 무대에 서왔다.

부산예술고등학교 2학년 권한나는 학생음악콩쿠르 1위(2018), 부산음악협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1위(2018)에 입상했으며, 금호영재콘서트 오디션합격 및 독주회(2019),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 시리즈 음악영재 선정 및 연주회(2018), 글로벌 전국음악콩쿠르 최우수상 및 수상자축하음악회(2017) 등에 출연했다.

부산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재학생이자 부산솔로이스츠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채영은 울산대학교 콩쿠르 1위 및 USP 협연(2011), 부산음악협회 콩쿠르 1위(2015), 김해 가야문화축제 콩쿠르 1위 및 김해시장상 수상(2018)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부산시립교향악단 '제77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2015) 무대에 선 바 있다.

경성대학교 2학년 최현수는 한국음악교육협회 콩쿠르 2위(2016), 글로벌 전국음악콩쿠르 2위(2018), 부산음악협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2위(2019)에 입상한 바 있다.

- 지휘/이민형(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2021 제1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Ⅱ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일 시 | 9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21 제1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두 번째 무대. 과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서진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테크닉의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아, 따뜻하면서도 화려한 음색으로 청중을 매료시키는 비올리니스트 에르완 리샤의 협연으로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애절하고 우수에 찬 이중주를 감상할 수 있는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작품 364와 쇼스타코비치의 '운명교향곡'으로 불리는 '교향곡 제5번' 작품 47을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1 뮤지컬 '광화문연가'

일 시 | 9월 11일 토요일 오후 3:00, 7:30,
12일 일요일 오후 2:00, 6: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故 이영훈 작곡가의 명곡들로 꾸민 주크박스 뮤지컬 '광화문연가'.

지난 2017~2018년 흥행 신화를 일으키며 단 두 시즌 만에 20만 관객을 돌파한 뮤지컬 '광화문연가'는 1980~90년대 격변의 시기, 그 시절의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사랑이 이야기를 소재로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감성으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인생 플레이리스트를 선사한다.

- 작/고선웅 • 연출/이지나
- 출연/윤도현, 엄기준, 강필석, 차지연, 김호영, 김성규 외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낭만희극 십이야

일 시 | 9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18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셰익스피어 고전을 한국의 전통적 미학과 접목시켜 새롭게 재해석한 유쾌한 낭만희극 '십이야'.

'남장여자'로부터 비롯된 얽히고 엮이는 사랑의 에피소드를 한국적 웃음을 더해 친근한 우리네 이야기로 풀어낸 이번 무대는

전체 출연진을 남자배우들로만 캐스팅하면서 여는 무대와는 다른 극단 여행자만의 유틸리티 넘치면서도 강렬한 무대를 선사한다.

- 오리지널 연출/양정웅 • 재연출/이대웅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1 시민뜨락축제

일 시 | 9월 24일(금)-10월 22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2:20 야외광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대표적인 야외무대축제.

올해는 도심 속 작은 문화축제를 지향하는 '어반 피크닉:힐링 마이 라이프 (Urban Picnic: Healing My Life)'를 컨셉으로, 지난 상반기에 이어 매주 금요일 낮시간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주요 일정

- 9월 24일 블루앙상블, 댄스팀 룩스
- 10월 1일 퓨전국악밴드 비원, Project A
- 10월 8일 얼터너티브 국악그룹 초아, 알싸께또마 부산플라멩코
- 10월 15일 이끌림앙상블, 어쿠스틱 나무의자
- 10월 22일 부산시립합창단, 장작연희 The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
공감사업
청년, 음악으로 만나
당신은 장애인 동료가요있습니까?

일 시 | 9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장애의 벽을 뛰어넘은 예술청년들의 화합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통합예술단체 앙상블 조이너스의 무대.

지난 2019년 창단한 조이너스 앙상블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정통 클래식뿐만 아닌 세미 클래식 등 편안한 음악으로 관객들과 소통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앙상블 조이너스 리더인 피아니스트 심은별과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상현, 바이올리니스트 강아연, 이주미와 플루티스트 윤승호가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해설/김선영

부산시민회관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배시시 명품극장 스윙

일 시 | 9월 29일 수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민회관이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마련하는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상영회.

예술의전당 공연실황을 생생한 고화질의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9월에는 시대를 풍미한 스윙음악을 현대적인

움직임으로 풀어낸 전석매진을 기록한 국립현대무용단의 '스윙'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작품은 정동 뉴유리언즈 핫 재즈 스타일의 스윙음악을 연주하는 스웨덴 출신의 6인조 밴드 젠틀맨 앤 갱스터즈의 음악에 국립현대무용단 안성수 예술감독이 안무한 작품으로, 스윙음악의 리듬과 에너지에 무용수들의 리드미컬하고 경쾌한 춤이 어우러지면서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음악

국립부산국악원 수요공감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22일 공연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홀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국립부산국악원이 매주 수요일 예인과 함께하는 가무악의 장으로 마련하는 '2021 수요공감' 9월 무대.



1일 장인숙 회원무용단 '논개삼첩'

경남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 이수자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한영숙류) 전수자, 춘당 김수악 전통 예술보존회 상임이사로 있는 춤꾼 장인숙이 이끄는 장인숙 회원무용단의 무대.

장인숙은 2020년 KBS 국악대상 무용상, 2018 세종대왕 전통예술경연대회 명인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진주교방굿거리춤(김수악류), 쌍승무(조갑너류), 살풀이 춤 애린(김경란류), 바람숲(이미영류),

한량무(임이조류), 구음검무(김경란류)

8일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 '가야금으로 이어지다'
가야금의 본향인 고령군이 지난 2015년 가야금의 계승·발전을 위해 창단한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의 무대.

프로그램

김병류 가야금산조, 가야금병창 '단가' 중 '명기명창', 판소리 중 '방아타령', 가야금소리(김성국곡), 용천검(함현상 곡), 대가야의 눈(임교민 곡), 훨훨(이정호 곡)

- 음악감독, 총연출/강미선



15일 전해옥 가야금병창 '회향'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이자 현재 가야금병창 그룹 소리디딤 대표로 있는 전해옥의 무대.

전남대학교 국악과 및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국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과 박사과정에 있는 전해옥은 제40회 전주대사습놀이 가야금병창부문 장원, 제29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단가 '백발기', 판소리 '흥보가' 중 '구만리~제비노정기', 원장현류 대금산조, 판소리 '적벽가' 중 '군사설움타령' '화흥도', 반야심경, 액막이타령
29일 한국음악양상을 점검 '興' 누리어 가자다



민속음악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추계예술대학 동문들로 구성된 젊은 아티스트 그룹 '한국음악양상을 점검'의 무대.

지난 2016년 10월 창단된 후 그동안 4차례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 광주MBC 2019 풍류달빛공연, 국립민속박물관 토요일상설공연, 전북 우리가락 우리마당 '씻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프로그램

풍류 '樂악', 소리 '聲성', 춤출 '舞무', 노래 '謠요'

9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22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금정문화회관이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상설무대로, 클래식에서부터 성악, 국악 등 다채로운 무대를 만날 수 있다.



1일(753회) 오페라 갈라, 그 두 번째 이야기

역사적인 인물이나 영웅, 신들의 이야기가 아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베리스모 오페라'의 호시라 할 수 있는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카나',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 등 두 작품을 소개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 소프라노/박소영, 이수진
- 테너/양승엽, 김정권
- 바리톤/채범석, 최대우
- 피아노/안준희



8일(754회) 창작음악소물레 '그대의 시를 나의 노래로'

작곡모임인 창작음악소물레가 마련한 창작가곡의 밤.

- 작곡/김규태, 김정진, 김주혜, 김지은, 김해영, 문우희, 서유진, 신동진, 양진경, 오세일, 윤혜진, 이상준, 이소진, 정지원, 최소영
- 피아노/김은희
- 테너/장지현 • 바리톤/이태영
- 소프라노/야정운 • 알토/조은

15일(755회) BUM타악기양상을 제4회 정기연주회 'Groove'

부산 출신의 뛰어난 기량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BUM타악기양상들의 무대로, 타악기의 역동적이고 리드미컬함을 느낄 수 있다.

- 연주/이성은, 김단비, 박선영, 이일순, 김영훈, 노선미

29일(756회) 클래식컬 뮤직 인 하모니

플루트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앙상블 무대.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국연주 시리즈 한여름밤의 베토벤

일 시 | 9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에델현악사중주단
070-7893-1072, 010-9700-3501



바이올리니스트 정진경, 손혜림, 비올리스트 강수이, 첼리스트 김혜지가 클래식 음악이 가진 고귀한 아름다움을 친숙하면서도 편안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창단한 에델현악사중주단의 무대.

지난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시작된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국연주 시리즈 마지막 무대로, 낭만현악사중주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현악사중주 제12번 작품 127를 들려준다.

2021 제1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롬나드 콘서트

일 시 | 9월 1일(수), 3일(금), 8일(수), 16일(목) 오후 7:30 **區 문화회관**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관객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구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프롬나드 콘서트'.

1일(수)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지난 1997년 서울국제음악제를 통해 데뷔한 유라시안 필하모닉에서 출발, 그동안 필하모닉, 챔버, 스트링, 앙상블 등 다양한 편성의 프로그램으로 매년 100여회의 연주를 가져오고 있는 뉴월드 챔버오케스트라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금난새가 지휘하고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 플루티스트 유재아, 클라리네티스트 백양지, 튜바 연주자 문지웅이 함께 한다.

3일(금)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지휘자 금난새가 지휘하는 KNN방송교향악단과 피아니스트 강한솔, 정은혜, 플루티스트 이호권, 클라리네티스트 이환석, 마림바주자 김가빈이 함께 하는 무대.

2016년 지역방송 최초로 창단한 KNN방송교향악단은 지난 2018년 양경아 음악감독 체제로 새롭게 재편된 후로 국내 정상급 지휘자와 우수한 연주자들을 유치하여 부산경남의 대표적인 민간오케스트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8일(수)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자 금난새가 이끄는 뉴월드 챔버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무대로,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케르,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지, 하모니카 연주자 이윤석, 첼리스트 최아현이 환

상적인 호흡을 선보인다.

16일(목)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프롬나드 콘서트 마지막 무대로, 오랜 기간 함께 해온 탄탄한 호흡으로 재즈뿐 아니라 팝, 가요,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연주해온 퓨전재즈 팀 판도라밴드가 무대에 선다.

- 연주/블로킹 바실리(색소폰), 알렉세이 알렉스(트럼펫), 노슬 알렉산더(기타), 박은주(피아노), 오범석(베이스 기타), 김진철(튜바), 한동민(드럼)

오페라 잔니 스키키

일 시 | 9월 2일(목)-3일(금)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12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 의 | 솔 오페라단 1544-9373



2005년 창단 후 젊은 감각과 완성도 높은 오페라를 잇달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는 솔오페라단의 오페라 '잔니 스키키'.

푸치니가 말년에 작곡한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인 '잔니 스키키'는 늙은 부호의 유산을 둘러싼 에피소드로, 짧고 유쾌한 가운데 해학과 신랄함이 예리하게 묘사되어 '3부작' 중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 예술 총감독/이소영 • 지휘/박지운
- 연출/Cristina Pezzoli
- 출연/ 김은곤, 조지영, 김유진, 박소연, 성미진, 조윤환, 김준연, 이대홍, 이신범 외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오충근의 古古한 콘서트III 노자와 베토벤

일 시 | 9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고전음악(古典音樂)과 고전철학(古典哲學)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만남 '오충근의 고고한 콘서트' 세 번째 무대.

지난해 '행복의 비브라토', '어게인 노자와 베토벤'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경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온화한 마에스트로' 오충근 지휘자가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더불어 다양한 무대를 통해 틀을 깨고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며 시대의 울림을 주고 있는 서강대학교 최진석 명예교수와 함께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관객과 교감하며 인생철학을 나누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

제1회 굿모닝 콘서트 Classic, Fall in Jazz&Tango

일 시 | 9월 3일 금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블랙업 커피 포함)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을숙도문화회관이 개관 이후 처음 선보이는 품격있는 해설과 음악이 있는 브런치 무대 '굿모닝 콘서트'.

'Classic, Fall in Jazz&Tango'라는 주제로 열리는 9월 무대는 클래식과 재즈, 탱고를 접목한 색다른 콘서트로, 클래식 음악의 엄격함과 정교함이 재즈와 탱고만의 자유분방함, 리듬감과 융화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 해설/안희성(부산MBC 아나운서)

비르투오조앙상블 시대를 넘어서, 위기를 넘어서

일 시 | 9월 4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비르투오조앙상블 010-3325-8729



지난 1995년 창단 후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 단체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여온 비르투오조앙상블의 무대.

기존의 연주자들과 더불어 젊고 새로운 연주자들이 함께 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고전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곡가들의 곡을 현악과 관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꾸민다.

- 바이올린/백재진, 김도경, 김영준
- 비올라/김은진, 황여진
- 첼로/이일세, 김기량
- 플루트/이주형 • 클라리넷/백동훈
- 피아노/이윤지, 박지혜

제31회 짜장콘서트

일 시 | 9월 4일 토요일 오후 4:0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로비

입장료 | 전석 1만원(사전예약, 선착순 30명)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이 매월, 음악의 저변확대와 부산 청년음악가 발굴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짜장콘서트 9월 무대.

‘부산 근현대 역사문화 투어’(당일 오후 1:30 동아대석당박물관 로비에서 출발)에 이어 열리는

이날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정은희(초청 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원아름, 첼리스트 이강수 등 양상בל 프로무지카가 출연, 피아노 3중주로 편곡된 가요·팝송·상송 등을 들려준다.

특히 스윙, 재즈, 보사노바, 탱고로 편곡된 대중가요를 통해 다양하면서도 변화무쌍한 리듬을 즐길 수 있으며, 조선시대 문장가 권필의 한시(漢詩)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박규동 창작곡 ‘피아노 3중주를 위한 새벽길’을 감상할 수 있다.

• 진행/이진이

2021 제1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시리즈

일 시 | 9월 9일-10일 목-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14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지역의 차세대 음악인 발굴을 위한 ‘음악영재’와 ‘라이징스타’, 부산음악인들의 무대 ‘부산음악인’ 등 지역의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 부산음악시리즈 -음악영재

9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부산음악시리즈-라이징스타

10일(금)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부산음악시리즈-부산음악인

14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장사익&김영임 희망콘서트 판

일 시 | 9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VIP석 6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금정문화회관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희망콘서트 ‘판’.

우리시대 가장 사랑받는 소리꾼 장사익, 김영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고유의 가락과

가요의 애잔한 정서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며 폭넓은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장사익과 우리 노래의 길을 아름답게 들려주는 김영임의 히트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휘자 방성호가 이끄는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를 통해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방성호 • 색소폰/김성훈
• 연주/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

2021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II

일 시 | 9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4



부산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축제 ‘제1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세 번째 무대.

따뜻한 감성과 열정으로 ‘보는 음악’의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지휘자 윤승업이 지휘하는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무

대로, 계명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알렉쉬친이 협연한다.

지휘자 윤승업은 2012년부터 9년간 상임지휘자로 충남교향악단을 이끌었으며 현재 국립경상교향악단 단장 및 상임지휘자로 재직 중이다. 피아니스트 알렉쉬친은 러시아와 한국에서만 50회 가량 독주회를 가졌으며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M.Glinka 국립음악원 교수로 재직한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2021 정기연주회 **신음악 전통에 대한 경의**

일 시 | 9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11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S석 1만원, A석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국립부산국악원이 지난 2014년부터 국악관현악의 활성화에 힘쓰고 작곡가들의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해온 기획무대 ‘신음악 전통에 대한 경의’.

KBS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원영석이 객원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상반기 정기연주회에 이어 가곡 계면조 중심의 관현악 초연작품을 통해 창작 국악관현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 음악감독/유경조(예술감독)
• 객원지휘/원영석
• 협연/김윤지, 유연정, 이희재
• 연주/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 성악단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4회 영 아티스트 협주곡의 밤

일 시 | 9월 11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무료(5세 이상 입장가능)

문의 |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난 1995년 동아원드 오케스트라로 창단된 후 2007년 시노두스 윈드 오케스트라를 거쳐 2019년 지금의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영 아티스트 협주곡의 밤.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2019년부터는 매년 차세대 연주자를 위한 청소년 협주곡의 밤을 개최하고 있다.

• 지휘/이동신
• 바이올린/김도윤, 이유림, 김서정, 김다연, 김형욱
• 첼로/곽경민, 이시현
• 호른/이주선, 성지은
• 플루트/박주연 소프라노/박소민

부산대학교 비전공자 오케스트라 동아리 Con Brio 제10회 앙상블 연주회

일 시 | 9월 12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대학교 콘브리오 010-2129-7526



음악과 악기를 사랑하는 비전공자들로 구성된 부산대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 Con Brio의 10번째 앙상블 무대 콘브리오는 지난 2012년 창단 후 그동안 14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 앙상블 연주회 등 다수 무대

를 통해 그 실력을 입증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의 장벽을 낮추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영화 OST로 관객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바흐/관현악 모음곡 2번
드보르작/신세계 교향곡 4악장
슈베르트/피아노 퀸텟 '송어' 4악장
비발디/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등 수곡

2021 제1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앙상블콘서트II

일 시 | 9월 13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부산지역 실내악팀의 환상적인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앙상블 콘서트' 두 번째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앙상블 루치아, 라울 트리오, 모아 트리오, 엔칸토 피아노트리오 등 4개팀이 출연, 다양한 편성의 연주

로 관객들에게 실내악의 매력을 선사한다.
출연
앙상블 루치아(바이올린 심채영, 심지민·비올라 박수정·첼로 윤지영), 라울 트리오(피아노 박소진·바이올린 이혜림·첼로 김경연), 모아 트리오(트럼펫 손장원, 김준영, 박소희), 엔칸토 피아노트리오(피아노 양진경·바이올린 공귀주·첼로 신소미)

어울림 상설Series #24 그림이 있는 힐링 음악회 추억의가곡 속으로

일 시 | 9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이 구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어울림 상설 시리즈 24번째 무대. 시대별 한국가곡과 현대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 화백의 그림과 삶을 콜라보한 무대로, 아티스트리터럴 윤정수의 해설로 음악과 미술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산촌, 길손, 옛날은 가고 없어도, 눈, 그리워, 청산에 살리라, 잔향, 국화 옆에서, 추억, 별을 깨는 밤, 어느 봄날
• 소프라노/이은미 • 메조소프라노/강희영
• 바리톤/심정보 • 피아노/김현경

제1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IV 콘체르토 칸피티션 갈라콘서트

일 시 | 9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문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국내외 연주자들의 경연을 통해 우수한 연주자를 발굴하기 위한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콘체르토 칸피티션 갈라콘서트'.

본선에 오른 연주자들이 마지막 우승을 놓고 실력을 겨루는 무대로, 올해 무대에서는 강운서(마림바), 이현주(플루트), 문시은(바이올린), 임채문(더블베이스), 류지원(플루트), 김찬이(피아노), 이정혁(피아노)이 지휘자 김경희가 지휘하는 서울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선다. 섬세하고 깊이있는 음악성과 따뜻한 인성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 김경희는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있다.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68회 정기연주회 C.V.C III 명사초청 백신콘서트

일 시 | 9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라로서는 처음으로 상근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전문예술법인단체인 (사)부산네오파하모닉 오케스트라의 C.V.C(클래식·백신·콘서트) 세번째 무대.

지난 2009년 7월 창단된 후 연간 40여회 이상의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온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전 국회의원 김세연을 초청, 문화와 사회 전반에 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지휘/홍성택(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 진행/김종천(부산네오파 단장)

김상훈 클라리넷 독주회

일 시 | 9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상훈 010-7226-3629



현재 부산네오파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스페셜 앙상블, 클래식 앙상블, 크누아 윈드 앙상블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김상훈 독주회. 부산에고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조기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프랑스 유학길에 오른 김상훈은 파리 국립음악원, Conservatoire de Val Maubuee 전문연주자과정, 베르사이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일찍이 국제 오사카 콩쿠르를 비롯해 부산음악콩쿠르, 한국음악협회 콩쿠르, 한국클라리넷협회 콩쿠르, 음악저널 콩쿠르 등 국내외 콩쿠르에서 1위 수상하며 클라리네티스트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 피아노/김태현 • 바이올린/김나영
• 클라리넷/신호연

서혜리&성민주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9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서혜리 010-3596-1964



이화여자대학교 동문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혜리, 성민주의 듀오 무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 미국 신시내티 대학 최고연주자과정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동안 미국, 중국, 유럽 등 다수 무대에서 활동해 온 서혜리는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 부산피아노 듀오협회 회장으로 있다.

오스트리아 모짜르테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수 독주회 및 실내악, 협연 등 다수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성민주는 현재 경성대학교 및 동대학원, 동아대학교, 경남대학교 외래교수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 해설/김윤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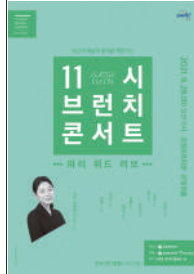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파리 위드 러브

일 시 | 9월 28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지난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된 후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자리매김한 비르투오조 앙상블, 소프라노 구민영과 함께 프랑스 파리로 떠나는 음악여행.

중앙일보 김호정 음악전문기자의 해설과 함께 드뷔시, 포레, 생상스, 구노 등 파리 하늘 아래에서 울려 퍼진 사랑의 찬가를 들려준다.

- 해설/김호정 • 바이올린/백재진, 김도경
- 비올라/황여진 • 첼로/이일세
- 플루트/오신정 • 피아노/권준, 이윤지
- 소프라노/구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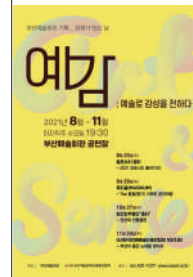
예감: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뮤지쿰(MUSIKUM)_The 鄉妓 (향기) 가득한 음악여행

일 시 | 9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예술회관 631-1377



부산예술회관이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는 문화가 있는 날 '예감: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9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성악을 중심으로 피아노트리오와 전통음악이 함께하는

전문예술단체 '뮤지쿰(MUSIKUM)'이 코로나19로 여행길이 막힌 현재,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을 마련한다.

특히 국악과 현악, 성악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가곡부터 실내악, 오페라, 영화음악까지 각 나라의 여행을 테마로 다양한 예술체험을 선사한다.

조운범의 파워클래식 콰르텟엑스 음악사의 하이라이트

일 시 | 9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무료(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필수)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조운범의 파워클래식'.

어렵게만 느껴졌던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영상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한 번의 공연으로 정리하는 콰르텟엑스의 대표적인 레차콘서트, 비발디, 바흐와 같은 바로크시대의 음악과 고전파시대의 하이든과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을 지나 멘델스존, 러시아의 벌라 불렀던 차이코프스키까지 음악사의 명장면을 조운범의 강의와 콰르텟엑스의 멋진 연주회로 풀어낸다.

현악사중주단 콰르텟엑스 리더인 조운범은 각종 공연과 방송, 강연 등을 통해 대중들의 클래식 길라잡이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생상스 타계 100주년 특별연주회 천재적 장인기술

일 시 | 9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BCMS앙상블 010-6476-7228



지난 2018년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BCMS(Busan classical music society) 앙상블의 무대.

BCMS 앙상블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기량이 뛰어난 연주자들의 환상적인 호흡과 인상적인 곡 해석으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생상스 타계 100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 작품을 남겼던 천재 작곡가 생상스의 작품세계를 들려준다.

- 비올라/김은진, 박나은
- 바이올린/임재홍, 김유리
- 피아노/김성권
- 첼로/이동열, 정지은

연극

코믹극 택시 안에서

일 시 | 4월 7일 (수)-Open run

수-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화요일 공연 없음) 부산 해바라기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평일 공연 예매시 60%, 주말·공휴일 예매시 51% 할인)

문의 | 미니티켓 1600-1716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요절복통, 좌충우돌 코믹연극 '택시 안에서'.

그동안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해 본 하영과 소희는 집으로 가는 택시안에서 운명 같은 만남으로 불같은 사랑을 시작하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지 못하고 두 손을 놓게 된다. 사랑에 상처를 받은 소희는 한 국을 떠날 결심을 하고 너무나 늦게 사랑을 깨달은 하영은 소희를 잡으러 공항으로 향한다. 마지막 인생이 걸린 택시에 탑승한 하영과 그런 그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는 택시기사 민수. 과연, 하영은 제시간 안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까?

코믹연극 검정고무신

일 시 | 5월 5일(수)-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용천지탈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예매시 1만3천원)
 문 의 | 미니티켓 1600-1716



더욱 탄탄해진 스토리로 다시 찾아온 버라이어티 코믹 휴먼 드라마 '검정고무신'.

지난 1960~1970년대 힘들었던 시대,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사랑을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검정고무신'은 가난했던 그때

그 시절 한 가족사를 통해 현재 우리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부모 없이 할머니와 어렵게 살아가는 삼남매, 진학도 포기한 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첫째 영일, 학교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철부지 말쟁쟁이 둘째 영삼,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살림만 하는 게 늘 불만인 똑순이 셋째 영실, 늘 춥고 배고픈 것이 일상인 영일네 가족의 고군분투기가 진한 감동을 전해준다.

연극 체인징 파트너

일 시 | 6월 10일(목)-9월 26일(일) 평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30, 5:00(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시대라 불리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던 배우자와 정반대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극 '체인징 파트너'.

커플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웨딩업체 주오의 커플매니저 김중매. 호기롭게 두 커플의 만남을 주선하지만 4명의 남녀가 비슷한 이름 때문에 맞선 상대가 바뀌게 된다. 파트너가 바뀐 것도 모르고 맞선을 시작한 그들, 이번 맞선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맞선과 결혼이라는 소재를 코믹하게 그린 이번 무대는 관객과 웃고 떠드는 가운데 사랑과 결혼이라는 명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연극 수상한 흥신소 2탄

일 시 | 9월 2일(목)-2022년 1월 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매주 월요일, 9/23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난 2014년 대학로에서 초연된 후 전국 28개 도시에서 흥행에 성공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웰메이드 창작극 '수상한 흥신소' 두 번째 무대.

공감할 수 있는 소재와 탄탄한 구성, 시시각각 터지는 웃음으로 그동안 200만 이상 관람한 스테디셀러 연극으로 자리잡은 '수상한 흥신소'는 이번 2탄에서 더욱더 발랄하고 유쾌해진 로맨틱 코미디로 관객들과 만난다. 영혼을 보는 청년 오상우, 그는 영혼들의 이루어 못한 소원을 들어주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어느 날 서비스센터 앞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의 범인을 찾기 위해 봉투를 뒤지던 그는 의문의 버킷리스트를 발견하게 되고 이후 그가 벌인 일로 견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마는데...

연극 그림자의 시간

일 시 | 9월 3일(금)-12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2018 제26회 부산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연출상, 신인연기상, 무대예술상까지 4관왕을 수상하고 그 해 2018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극단 누리애의 '그림자의 시간'.

올해 2021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로 선정된 '그림자의 시간'은 조선 후기 단발령이 내려지기 전 긴장감이 감돌던 시대를 배경으로, 조선 최초 이발사 최운찬의 삶과 당시 조선의 혼란을 통해 역사의 소용돌이 속 개인이 짊어져야 했던 운명을 그린 작품이다.

- 작/유보배 • 연출/강성우
- 출연/이태성, 이혁우, 호민, 김성열, 이희선, 김홍식, 윤준기, 이재찬, 우지현

연극 한여름 밤의 꿈

일 시 | 9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4일 토요일 오후 4: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해운대문화회관과 을숙도 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이 공동기획으로 제작한 연극 '한여름밤의 꿈'. 셰익스피어의 4대 희극 중 하나로, 어긋난 운명의 연인들이 진실한 사랑을 찾기 위해 벌이는 유쾌한 소동극으로, 특히 이번 무대

에서는 연극과 무용, 국악이 어우러지면서 즐거움과 신비함이 가득한 판타지 세계가 펼쳐진다. 숲을 지키는 여왕의 딸 '아리'는 인간 세상을 동경해 도시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불길한 꿈을 꾸고 '아리'는 숲에 위기가 닥쳤음을 실감하며 숲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사랑하는 남자 '용'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숲을 지키는 자 '청우'는 '아리'에게 기억을 지우는 약을 마시게 하여 '용'을 잊게 하는데...

2021 가족뮤지컬 어린이캣

일 시 | 9월 4일 토요일 오전 11:3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아이에이치컬쳐 070-4045-2302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인 뮤지컬 '캣츠'를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어린이캣'. 거리에서 떠도는 고양이들의 애환을 묘사한 뮤지컬로,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와 폭발적인 가창력, 수준 높은 퍼포먼스로 가슴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한다.

일년에 한번 열리는 길거리 고양이들의 축제인 '젤리 축제', 이날 축제에서 뺏힌 젤리를 고양이 천상으로 높이 올라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믿고 있다. 축제가 열리는 날, 저마다 사연도 성향도 다른 고양이들은 젤리를 고양이 되기 위해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과연 젤리를 고양이는 누가 될 것인가.

- 작, 연출/김시윤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와 하하호호 노래자랑

일 시 | 9월 11일-12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부산홀**
입장료 | VIP석 5만5천원, R석 4만5천원
문의 | 극단 화랑 1644-5564



어린이의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 이용 교육을 위해 버스와 교통수단을 애니메이션화한 작품으로 2010년 첫 시즌이 방영된 이후 어린이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꼬마버스 타요'를 무대화한 가족뮤지컬

시골버스로 재탄생한 꼬마버스 타요의 더 신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꼬마버스 타요의 주요 히트곡과 더불어 신나는 율동 그리고 환상적인 무대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연극 장수상회

일 시 | 10월 2일 토요일 오후 3:00, 6:00,
3일 일요일 오후 3: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문의 | ㈜전공이엔티 1522-2061



70세 첫 사랑의 설렘 가득한 로맨스를 그린 명품 연극 '장수상회'.

2015년 강제규 감독의 동명영화를 연극으로 제작, 2016년 초연된 후 탄탄한 스토리와 명품 연기로 전 연령층에서 사랑받으며 오직 관객들의 입소문만으로 대한민국 대표연극으로 자리매김한 '장수상회'는 사랑 앞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소년, 소녀가 되는 연애초보들의 풋풋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와 예기치 못한 반전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 일깨워준다. 특히 평생 욕심을 지키며 살아온 까칠한 노인사 김성철과 소녀 같은 꽃집 여인 임금님 역으로 대한민국의 내나라하는 배우 이순재, 백일섭, 손숙, 박정수가 맡아 명품연기를 선보인다.

무용

이태상프로젝트 현대무용 괴물, 강철이

일 시 | 9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부산의 대표적인 현대무용단체인 이태상프로젝트가 선보이는 신작무대 '괴물, 강철이'. 부산 지역의 설화에 등장하여 비, 가뭄 등에 영향을 주는 '강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번 작품은 설화 속 캐릭터와 어우러지는 세련된 무대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유머와 위트 있는 안무와 연출로 무용 공연예술의 대중성을 이끌어 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라대학교 이태상 교수가 이끄는 이태상프로젝트는 그동안 현대무용의 새로운 움직임을 찾는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옥련 발레단 2021 숲속발레 거인의 정원

일 시 | 9월 16일-17일 목-금요일 오전 10:00,
18일 토요일 오후 4: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4세 이상 관람, 예매시 20% 할인)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2002년 초연된 후 오랜 세월 많은 사랑을 받아온 김옥련발레단의 전국 최초 최장수 창작 가족 발레극으로, 매년 다른 작품을 선보이며 부산 출계를 대표하는 장기 공연으로 자리잡아온 '숲속발레' 2021년 무대.

욕심 많은 거인이 많고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깨닫고, 자연 사랑과 생명 사랑을 주제로 황폐해가는 인간성의 회복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거인의 정원'은 발레뿐만 아니라 연극, 뮤지컬, 현대춤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울속도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안녕하신가요, 당신

일 시 | 9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4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울속도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9월 무대로, 춤꾼 허경미가 이끄는 허경미무용단 무무의 '안녕하신가요, 당신'이 선보인다. 허경미 무용단 무무는 한국춤을 기반으로 한 창작춤을 주된 작업으로 선보이는 무용단으로, 최근에는 타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춤 공연의 정형성을 탈피하는 한편, 극장공간을 벗어난 다양한 춤 공연 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미디어 퍼포먼스 '쿨바카', 신체 움직임의 다양한 울림을 표현한 '꽃꽃이' 등 새롭고 참신한 시도의 무대가 선보인다.

콘서트

홍스프레스 단독 콘서트 더블샷

일 시 | 9월 4일 토요일 오후 6: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문의 | 비스카엔터테인먼트 070-8098-7006



JTBC '팬텀싱어' 시즌 1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홍스프레스의 부산무대. 베이스바리톤 권서경과 뮤지컬 배우 고은성, 백형훈, 테너 이동신으로 구성된 홍스프레스는 유니크한 퍼포먼스와 다채로운 음악적 스펙트럼을 갖춘 팀으로, 팀명인 홍스프레스는 '에스프레스의 진한 향기를 가슴에 품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멤버인 고은성의 입대 이후 3년만에 열리는 이번 단독콘서트에서는 홍스프레스의 더 베스트 컬렉션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비롯해 새로운 무대까지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려온 팬들을 위한 역대급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김옥균의 클래식 아카데미 클래식 살롱&월드뮤직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00,
목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문화홀**
입장료 | 3개월 수강료 12만원(각 프로그램별)
문의 | 영광도서 070-4020-2540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의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 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김옥균의 클래식 아카데미'.

9월부터 영광도서 3층 문화홀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매주 화요일에는 월드뮤직 감상회가, 목요일에는 클래식 감상회가 개최된다.

월드뮤직 프로그램

Celtic Music 특집, 켈트 음악 역사, Celtic Woman 공연 실황
안드레아 보첼리의 판타지 영화음악 '시네마' 미국 공연 실황

탱고 음악 특집, 아르헨티나의 탱고음악 하이라이트
한국 포크 음악 페스티벌, 양희은, 송창식, 김민기, 김정호, 정태춘

클래식 살롱 프로그램

사라사테 '지고이네르 바이젠', 브람스 '헝가리춤곡' 제1번, 제5번, 제6번
빈 필하모닉의 쉰 부른 궁전 2021년 여름밤 음악회 실황
앙드레 류의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광장음악회 실황
발레로 만나는 베토벤의 '합창교향곡'(모리스 베자르의 모던 발레)

제167회 알바트로스 시낭송 콘서트 가을 주제 詩 낭송회

일 시 | 9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회장
010-6367-0149

- 특별출연/소프라노 박현정

9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1: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 5천원)
문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인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9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교향곡, 협주곡 콘서트 실황을, 매주 금요일에는 러시아 오페라 시리즈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상세한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오페라바움에서는 매주 이어지는 성악가의 땀방울과 작은 소리까지 놓치지 않는 최신 영상물을 통해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오페라 감상을 즐길 수 있다.

- 3일(금) 차이콥스키 '예프게니 오네긴'
- 10일(금) 차이콥스키 '올란타&호두까기인형'
- 17일(금) 린스키 코르사코프 '차르의 신부'
- 24일(금) 보로딘 '이고르공'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 예술여행II 낭만주의와 그 이후 예술여행

일 시 | 9월 4일(토)-10월 9일(토) 오전 10:00
영도문화예술회관 동백홀
입장료 | 무료(사전 전화예약 필수)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 예술여행II'는 서양 문화 예술의 시작이라는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문화예술의 찬란한 꽃을 피운 낭만시대까지의 음악·미술 등 작품과 시대별 예술가들을 테마인 여행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으로, 아트커뮤니케이터 김성민의 친근한 해설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강좌에서는 '낭만주의와 그 이후 예술여행'이라는 주제로 4차례 강좌와 공연감상이 펼쳐진다.

9월 시네마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20일 강좌없음),
화요일 오전 11:00, 16일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마움**
입장료 | 수강료 1만5천원
(소수 정원제, 문자·예약 필수)
문의 | 시네마움 010-2774-3455

6일(월) 오후 7:00 정해성의 문화공간 '피아노 음악의 역사, 소나타'
• 강사/정해성(문화평론가, 문화공간 라움Y 대표)

7일(화), 14일(화), 28일(화) 오전 11:00 윤산의 논어아카데미
•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11일(토) 오전 9:00 부산을 걷다. 부산의 근현대 역사기행(1호선 토성역 2번 출구, 만남의 광장 집결)
• 진행/김준권(위당역사사상연구소 소장), 배진영(경성대 사학과 외래교수)

13일(월) 오후 7:00 삼국지 인물 시리즈 2 '유비는 현군(賢君)인가? 우군(愚君)인가?'
• 강사/김준권(위당역사사상연구소 소장)



16일(목) 오전 11:00 낭독과 낭송과 토크 '백석이 사랑한 시, 나즘 히크메트' 나즘 히크메트 시선집 (윤진이/백석)
• 진행/김비주, 박노경, 황혜경

27일(월) 오후 7:00 조선 하이쿠와 이한수 읽기
• 강사/안수현(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원)

어울림 상설Series #25 갤럭시 일루전쇼

일 시 | 9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아트의 융복합을 시도한 특별한 무대 '갤럭시 일루전쇼'

전시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이토록 아름다운:The Nature of Art

일 시 | 4월 23일(금)-9월 1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부산박물관 2021년 제2회 신수유물 소개전
다시 그리는 왜관-초량화관
지도草梁和館之圖

일 시 | 6월 15일(화)-10월 17일(일)
부산박물관 부산관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BMA 소장품 하이라이트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혼자였다

일 시 | 7월 17일(토)-10월 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웨이브 스플래시!

일 시 | 6월 12일(토)-9월 26일(일)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입장료 | 일반 7천원, 13세 미만 5천원
(36개월 미만 무료)
문 의 |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745-1508

바다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오감 체험형 전시 '웨이브 스플래시!(Wave Splash)'. 파도와 고래, 바닷 속 오로라와 심해 생물 등이 프로젝션 맵핑, VR, 키네틱 아트로 재해석되어 전시 되면서 각 작품을 체험하며 바다에 관한 다양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 참여작가/그루브 무브먼트, 박솔잎, 이정윤, 이창진, 차푸름, 최문석, 허병찬
- 관람시간/오전 10:30~오후 8:30(주말·공휴일은 오후 8:30까지)



2021 LOCAL TO LOCAL

일 시 | 7월 24일(토)-9월 4일(토)
오픈스페이스 배
문 의 | 오픈스페이스 배 724-5201
...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6:00(일·공휴일 휴관)

임준영 사진전
늘, 그러하듯

일 시 | 7월 26일(월)-10월 16일(토)
BMW Photo Space
문 의 | BMW Photo Space 792-1630
...
• 관람시간/오전 9:00~오후 6:00(토요일은 오후 3:00까지, 일공휴일 휴관)

관심없는 풍경:몽우리들을 찾아서 부산경남 편

일 시 | 8월 3일(화)-9월 30일(목)
부산도서관 2층 전시실
문 의 | 부산도서관 310-5400

김해동 초대전
블루진으로부터-불꽃의 이마쥬

일 시 | 8월 7일(토)-9월 6일(월) 갤러리 하이
문 의 | 갤러리 하이 754-5588

2021 서동예술창작공간 <뮤지엄 서동>
전시 SEASON2
도시와 사람들 in 서동展

일 시 | 8월 13일(금)-9월 10일(금)
서동예술창작공간 1층 갤러리
문 의 | 서동예술창작공간 525-6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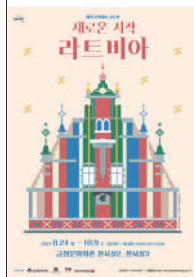
을숙도 '부산사랑 젊은작가 프로젝트 2021' 릴레이전

일 시 | 8월 24일(화)-9월 5일(일)
갤러리 을숙도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22

- 참여작가/박상희, 손형호, 안석희, 이주현, 정은, 홍지혜

금정문화회관 해외 문화예술 교류전
새로운 시작 라트비아

일 시 | 8월 24일(화)-10월 9일(토)
금정문화회관 제2, 3전시실
입장료 | 무료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57



2021년 한국-라트비아 수교 30주년을 맞아 금정문화회관이 마련한 해외 교류전. 해외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자연친화적인 나라 라트비아의 건축, 전통의상, 일러스트 등 작품 120여 점이 소개된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일요일 휴관)

2021 지역작가 초대전시
김영주 초대展

일 시 | 9월 1일(수)-9월 15일(수)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마련하는 '선유 EXHIBITION 시리즈' 세 번째 전시로, 내공이 있는 붓질로 묵묵히 작업해온 영도의 작가 김영주의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푸른 색의 작가'라 불리는 김영주의 작품은 요약된 굵은 선으로 특색 던지듯 단순하게 표현되어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화면은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영주의 1970~1980년대 젊은 시절의 작품들과 최근작들을 포함해 20여 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주말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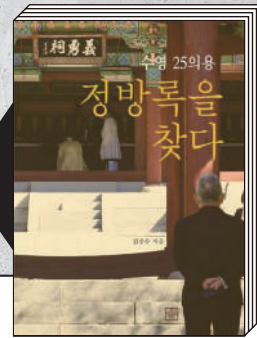
B



O



K



라이선스LP 연대기

윤준호 지음 / 서해문집
530p / 4만 8천원

비틀스에서 딥 퍼플까지, 퀸에서 너바나까지 입문자와 수집가 모두를 위한 한국 라이선스LP의 모든 것을 담은 책. 몇 해 전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국내에서도 큰 흥행몰이를 했고, 여기에 레트로 열풍이 맞물리면서 LP가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다. LP가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는 음반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디지털기기를 통해 편하게 음악을 접하던 젊은 세대도 LP를 주목한다. 2020년 미국에서는 34년 만에 LP 매출이 CD 매출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에게 LP는 특별한 추억이 있다. 원판은 비싸고 구하기 힘들었기에 국내 음반사가 외국 음반사 허가를 얻어 정식 발매한 라이선스LP는 마치 복음과도 같았던 것이다. 이 책은 1970~90년대에 발매된 107팀의 305개 라이선스LP를 2,000여 장의 사진과 500쪽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집대성했다. 음반 수집가 윤준호, 윤상철, 김주희 씨가 공동으로 7년에 걸쳐 작업한 결과물이다. 영국 록 그룹 퀸의 자타 공인 대표곡은 '보헤미안 랩소디'인데, 40여 년 전 국내에 음반이 처음 나올 때는 금지곡 처분 때문에 이 곡이 빠진 채 발매되었다는 일화 등도 소개했다. 책을 펼치면 LP가 돌아가고 음악이 들리는 듯하다.

북경출판사
북경출판사

추사 김정희의 평전

최열 지음 / 돌베개
1,094p / 5만 5천원

미술사학자 최열이 추사 김정희를 둘러싼 담론을 총망라한 평전을 냈다. 예술과 학문을 넘나든 천재의 가슴 저린 삶과 눈부신 작품 세계는 이제 신화가 되었다. 추사에 관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시와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추사를 기리는 곳도 많다. 충청남도 예산군 추사기념관, 제주도 대정면 제주 추사관, 경기도 과천시 추사박물관 등은 추사 김정희 신화가 얼마나 큰 영향력과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지 말해준다. 추사는 출생부터 신화를 품고 태어났다. 어머니가 추사를 24개월 동안 잉태했다는 소문이 세간을 물들었고, 사망에 얽힌 신화도 따라다닌다. 우봉 조희룡은 추사가 맥이 끊어진 후에도 사흘 동안 글씨를 썼다고 소치 허련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했다. 탄생과 사망에 얽힌 이야기가 이 정도이며, 그의 삶 역시 전설과 신화를 품고 있다. 그래서 사후 200년이 가까운 지금도 활발히 논의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지만, 추사의 작품과 생애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최열은 이 책에서 추사와 관련한 거의 모든 것을 차근차근 짚어 내고 밝히며 추사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간다. 선명한 도판과 충실한 해설로 만나는 추사의 예술 세계이다.

수영 25의용 정방록을 찾다

김종수 지음 / 비온후
282p / 1만 8천원

이 책은 부산 역사의 단편일 수 있지만 가장 무거운 부산의 역사다. 오래전부터 조선의 바다를 지키던 수군이 주둔하던 국경이 수영이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해안에 두었던 수영의 이름이 이제는 부산에만 지명으로 남아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25의용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25의용은 임진왜란 7년 내내 유격전을 벌이며 항전하였다. 그래서 나라는 글로 남겨 널리 알렸고 제단과 단비를 쌓아 매년 기렸다. 동래부사가 쓴 <정방록>이 기록이고 경상좌수사가 세운 의용제인비와 25의용단이 그것이다. 25의용을 기리는 제사는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강점기에도 면면히 이어졌으며 지금도 매년 향사(享祀)를 거행하고 있다. 이 책에는 25의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연유와 기록들, 영원히 사라진 줄만 알았던 <정방록>의 실체를 찾아낸 과정과 풀이를 싣고 있다. 25의용은 400년 전에만 있었던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며 꿈틀거리는 뜨거운 기운이다. 책은 크게 25의용단, 독당, 수영성으로 나누어져 있고 필자와 필자 선친의 '향토지킴이'로서의 행적을 역사적인 내용들과 엮어 부산 수영의 역사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Art Project A to Z 3기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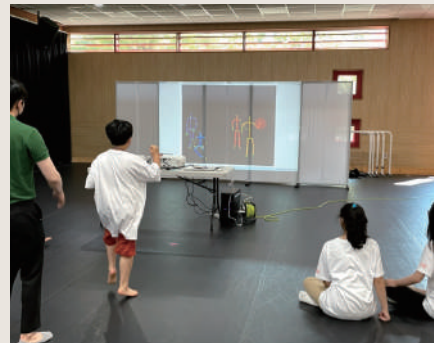
**교육기간 9월 18일~10월 16일
초등학교 고학년 20명 모집**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21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선정프로그램인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Art Project A to Z' 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Art Project A to Z'는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전체 교육과정은 스토리랩, 테크랩, 움직임랩, 뮤직랩, 판타지랩 등 총 5개 과정, 8회차로 진행된다.

이번 'Art Project A to Z'는 4월부터 3개월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1기와 2기 수강생을 배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융합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1기, 2기의 경우 강의 시작과 함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강의 일정과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전체 일정 중 3회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교육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강생들이 악조건 속에서도 전체 일정을 소화하고 마지막 8회차에서 전체 교육과정을 담은 영상 결과물을 선보이기도 했다.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Art Project A to Z'는 3기는 9월 18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8회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3기 강좌는 1기와 2기 교육과정을 더욱 보완해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보다 완성된 교육프로그램으로, 부산지역 청소년들에게 보다 새롭고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모집기간

8월 30일(월)~9월 10일(금)

수강료

무료

신청방법

메일 접수

(kmj0078@bscc.or.kr)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기 교육일정

구분	회차	일정	장소
스토리랩	1회차	9.18(토) 09:30~12:30	부산시민회관 연습실
테크랩	2회차(비대면)	9.23(목) 18:30~21:30	온라인(줌)
	3회차	9.25(토) 09:30~12: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움직임랩	4회차	10.2(토) 09:30~12: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뮤직랩	5회차(비대면)	10.7(목) 18:30~21:30	온라인
	6회차	10.9 (토) 09:30~12: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판타지랩	7회차	10.16(토) 09:30~12: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8회차	10.16(토) 13:30~16:30	

(재)부산문화회관, 국립수산과학관·(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

(재)부산문화회관이 국립수산과학관(관장 최우정), (사)부산마루 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백진현)과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재)부산문화회관과 국립수산과학관은 지난 7월 21일, 지역 문화예술 증진 및 해양수산 탐구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 기장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관은 1997년 5월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수산 종합과학관으로, 해양수산에 관한 다양한 교육 및 전시, 행사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여가문화시설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의 여가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으로 과학과 예술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올해로 12회를 맞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

직위원회와도 지역 음악계 교류와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지난 2010년 첫 발을 내딛은 후 그동안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급의 클래식 음악축제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부산마루국제음악제에 초청받아 음악제의 품격을 높이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주관 기관으로서 앞으로 국내외 네트워크 교류의 활성화와 음악제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021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8월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26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음악제 메인콘서트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9월 3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과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서진이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아, 비올리스트 예르완 리샤의 협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하반기에도 풍성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3

부산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감상 프로그램 ‘꿈꾸는 예술학교’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부산시립예술단은 2020년 부산시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꿈꾸는 예술학교’ 프로그램을 신설,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꿈꾸는 예술학교’는 부산시립합창단의 ‘교실밖 합창여행’, 청소년교

향악의 ‘재밌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 국악관현악단의 ‘재밌는 국악 신나는 국악’ 등 공연장 공연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교육공연’, 예술단에서 직접 제작한 교육공연 영상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해설 공연 ‘온라인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의 베이스스트

이해성 (재)부산문화회관 인사협력팀 주임

밴드에서 베이스기타는 일렉기타, 보컬, 드럼, 건반 등과는 달리 선율이나 리듬을 주도하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모든 악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며 소리의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기교적인 연주보다는 기본적인 코드음에 충실하여 밴드사운드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베이스기타인 셈이다.

이러한 베이스기타의 역할과 인사 업무에는 여러 유사성이 있다. '경영목표'라는 하나의 곡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가지각색의 특징을 가진 다양한 악기(단원, 직원, 내부 이해관계자 등)와 작곡가(경영진)의 의도가 조화를 이루게 하고 '완주'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잡는 역할이 바로 인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기본기 다지기: 코드 익히기

프로, 아마추어를 막론하고 베이스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드위치를 익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음을 내는 것이다. 언제 어떤 악보가 주어지든 간에 연주해낼 수 있는 기술이야 말로 베이스스트의 역량을 평가하는 핵심요소이지 않을까? 인사 업무의 기본기는 급변하는 법적·제도적 트렌드를 우리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한 음 한 음 잘 짚어내는 현실화 능력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력 싸움. 나는 매일 아침 책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노동 관련 칼럼, 인사업무 관련 간행물, 법무법인 뉴스레터, 노동 관련 판례 등의 자료를 검색하여 인사업무와 관련된 현재의 이슈를 파악하고 우리 기관이 바로 적용해야 할 과제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구분하여 기록해둔다. 특히, 요즘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영역은 2021년 상반기 인사분야 최고 이슈인 '공정성에 기반한 보상체계 개선'이다. 이는 현재 부산시립예술단에서도 가장 핫한 키워드이기도 하고, 직

장 내 MZ세대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관심도가 증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악보 연주하기

열심히 기본기를 다졌으면 다음 단계로 악보를 연주해보자. 작곡가(경영진)로부터 주어지는 악보는 때때로 난해할 때가 있다. 아직 기본밖에 연주하지 못하는 데 *슬랩주법으로 연주해야 하는 곡을 주실 때도 있고, 곡 전체의 분위기와 이질감이 있는 곡을 주실 때도 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하여 하루종일 멘붕(?) 상태였겠지만 5년차 베이시스트인 나는, 당황하기보다 현실화 또는 절충안을 만들기 위해 물입한다. 보통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 단계에서의 연습량이 합주의 질적 완성도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슬랩주법 : 베이스기타의 리드미컬함을 보여줄 수 있는 주법이며, 세부적인 스킬을 조합하여 리듬감을 극대화하는 고난도 연주 방법)

밴드 합주하기

이제 연습된 나만의 주법을 밴드로 옮겨와 조화롭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연주하면서 다른 악기의 요청에 의해 연주방식이 달라지거나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역할은 전체 선율과 리듬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돋보이기 위한 과한 주장보다는 완주를 위한 소통과 설득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합주가 '노사협의회' 또는 '단체교섭'일 것이다. 2018년 부산시립예술단 노조와 약 39차례의 단체교섭 회의를 진행하여 110개 단체협약 조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약 1년 4개월간 진행한 단체교섭에서 노사양측은 치

열하게 서로를 설득하고 때때로 싸우기도 하며 '부산시립예술단의 발전'이라는 완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단순한 연주 결과물이 아닌 서로의 연주방식, 합주 시 고려사항 등까지 체득할 수 있게 되었다.

사후 평가

다음으로 남은 것은 평가의 시간이다. 대중은 곡을 연주하면서 기울인 노력이나 수고를 두고 그 곡을 평가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연주에 대한 '질적 완성도'라는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한다.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인 (재)부산문화회관은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 수시로 특별감사를 통해 행정·경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받는다. 인사업무와 관련된 감사는 주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잣대를 두고 오류 여부를 확인한다. 채용, 평정, 포상, 징계 등 인사 업무 중 모든 분야에 대해 그 절차가 법적·제도적 기준에 맞게 잘 진행이 되었는지를 평가하지만 그 업무를 위해 들인 노력과 수고는 그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평가된 곡은 충분히 보완하여 다음 연주에 반영하고, 다시 '기본기 다지기'부터 '사후 평가'까지의 순서를 또 반복하여 완성도 높은 곡을 만들어 간다.

베이시스트로서의 마음가짐

인사 업무의 특성상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여러 대안 중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게 조력하는 것이 인사 담당자의 꽤 중요한 역할이다. 앞으로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연습·연주에 매진하는 베이시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인사협력팀 이해성 주임

대학생 시절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렸던 '부산예술제' 행사의 봉사활동을 통해 부산문화회관과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산예술회관 기획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처음 예술경영을 경험하였고 부산시청 및 부산연구원에서의 공공업무 경험을 통해 예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재단 설립 초기에 입사하여 우왕좌왕, 우여곡절, 좌충우돌을 겪으며 사고몽치 막내였던 제가 어느덧 5년차 직원이 되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인사업무의 매력을 일깨워준 소중한 터전입니다. 부족하지만 (재)부산문화회관의 수준 높은 예술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22

2021-22 BSCC
SEASON PROGRA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1-22 시즌 프로그램

b s c c s e a s o n p r o g r a m

부산을 품다 _ 세상을 잇다 _ 예술로 함께 하다

(재)부산문화회관 2021-22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연극/뮤지컬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워 호스 War Horse>

문화 | 중극장 4.2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세익스피어 고전에 대한 한국적 재해석
낭만희극 <심이야>

시민 | 소극장 9.17.(금)~9.18.(토)
금 7:30pm 토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전설의 리틀농구단

문화 | 중극장 10.9.(토) 14:00pm, 18:00pm
R 60,000원 S 50,000원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막히는 심리게임
<흑백다방>

시민 | 소극장 10.23.(토)~10.24.(일)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리어왕 King Lear>

문화 | 중극장 10.23.(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얼어버린 두 손의 천재음악가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문화 | 중극장 11.5.(금)~11.6.(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스승의 삶을 흠친 제자의 딜레마
<단편소설집> [일정 연기]

시민 | 소극장 12.17.(금)~12.18.(토)
금 7:30pm 토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무용/발레

2021 BSSC 제작공연 시리즈 I

이정운 안무 신작 <MOTI/어디로부터>

문화 | 대극장 9.3.(금)~9.5.(일)
금 8:00pm 토-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2021 BSSC 제작공연 시리즈 II

(재)부산문화회관 &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문화 | 중극장 11.26.(금)~11.27.(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한국 발레 대표 국립발레단의 12월 선물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시민 | 대극장 12.1.(수)~12.2.(목) 7:30pm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음악/클래식

한국을 대표하는 형제 피아니스트의 첫 듀오무대

피아니스트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클

문화 | 대극장 3.6.(토) 5:00pm
R 9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B 30,000원



빈 필과 베를린 필의 매력적 만남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취소]

문화 | 대극장 6.22.(화) 7:3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성악과 기악의 정점에서 만나는 바로크 음악

조수미 & 이 무지치(I Musici)

문화 | 대극장 12.18.(토) 5:00pm
V 150,000원 R 120,000원 S 90,000원 A 70,000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2021 제야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31.(금) 10: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패키지 제외



국악

전국팔도 핫한 탈꾼들의 제대로 보여주는 탈춤판
천하제일탈공작소 <가장무도>

문화 | 중극장 4.3.(토) 5:00pm
R 30,000원 S 20,000원



오페라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문화 | 중극장 5.1.(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I
브리젠츠 오페라 페스티벌 <리골레토>

문화 | 중극장 6.12.(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II
라 스칼라 <아이다>

문화 | 중극장 9.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II
<피가로의 결혼>

문화 | 대극장 10.15.(금)-10.17.(일)
금 7:30pm 토·일 5:0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 패키지 제외



마린스키극장 오페라단 내한 공연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 공>

시민 | 대극장 11.10.(수) 7:30pm
V 9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V
베를린국립오페라 <맥베스>

문화 | 중극장 12.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다원예술

브로드웨이를 매료시킨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 SNAP>

문화 | 중극장 5.20.(목) 2:00pm 7:30pm
R 30,000원 S 20,000원



콘서트

한국인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2021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시민 | 대극장 5.28.(금)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 패키지 제외



감동을 넘어서는 마법의 시간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시민 | 대극장 8.28.(토) 5: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 패키지 제외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영원한 히어로
썸머 나이트 콘서트

시민 | 대극장 12.16.(목)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BSCC 인문학* 콘서트 : 향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행복의 조건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문화 | 중극장 3.26.(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합창단



어디서 살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건축가 유현준

문화 | 중극장 4.30.(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합창단



진정성의 시대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문화 | 중극장 5.28.(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미술사학자 유홍준

문화 | 중극장 7.30.(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부산시립무용단



영원한 광대 김명곤의 풍류정담(風流情談)
공연예술인 김명곤

문화 | 중극장 9.24.(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부산시립무용단



뇌과학에 묻다, 예술의 미래는?
뇌과학자 김대식

문화 | 중극장 10.29.(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가족·어린이·청소년

공연장 예술진로교육 프로그램
스쿨 온 스테이지 School on Stage

문화 | 중극장 5.26.(수) 11.17.(수)
10:00am 2:00pm
All Seats 10,000원



온가족과 함께하는 판타스틱 모험의 세계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 4

시민 | 대극장 6.19.(토)~6.20.(일)
토 11:00am 2:00pm 4:30pm
일 11:00am 2:00pm
1층 60,000원 2층 50,000원
※ 패키지 제외



백희나 작가의 원작을 넘어선 감동
뮤지컬 <알사탕>

문화 | 중극장 7.10.(토)~7.11.(일)
7.16.(금)~7.18.(일) 금 4:00pm
토일 11:00am 2:00pm 4:00pm
1층 50,000원 2층 40,000원
※ 패키지 제외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취소]

문화 | 중극장 9.9.(목)~9.10.(금)
목 7:30pm 금 2:00pm(단체관람) 7:30pm
R 30,000원 S 20,000원



문화가 있는 날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스크린으로 만나다
(재)부산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시민 | 소극장 4.28.(수), 5.26.(수), 6.30.(수),
7.28.(수), 9.29.(수), 10.27.(수) 11.24.(수),
12.29.(수) 7:30pm
All Seats Free



지역프로젝트

부산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2021 시민뜨락축제

시민 | 야외무대 상반기(4~5월)
하반기(9~10월) 12:20pm
All Seats Free



비대면 시대, 온라인으로 즐기는 배시시한 콘텐츠
2021 배시시 프로덕션 온택트

배시시(BSCC)TV 2021년 하반기
BSCC 온라인 플랫폼 Free Streaming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문화 | 시민 8.14.(토)~8.22.(일)
평일 7:30pm, 주말-공휴일 5:00pm
All Seats 20,000원



실내악의 향연, 음악의 온기를 전하다
2022 (재)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문화 | 중극장&챔버홀 2022.1.18.(화)~1.3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 2021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_정기연주회

제571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신년음악회

문화 | 시민 1.14.(목)~1.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이경숙&김규연



제572회 정기연주회 선후배

문화 | 중극장 3.1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첼로 정재윤 | 바이올린 김덕우



제573회 정기연주회 슈트라우스 어게인!

시민 | 대극장 4.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임윤찬 | 작곡 김택수(2021 올해의 예술가)



제57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말러 [하반기 연기]

문화 | 대극장 4.30.(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 이병욱



제575회 정기연주회 열정

시민 | 대극장 5.27.(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클라리넷 김한



제576회 정기연주회 비제의 교향곡 제1번

문화 | 중극장 6.18.(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이민형 | 피아노 이윤수



제577회 정기연주회 프랑스식 뉘앙스 [취소]

문화 | 대극장 7.1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 아드리앙 페뤼송



제578회 정기연주회 합창

문화 | 대극장 9.16.(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소프라노 박은주 |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국윤중 | 베이스 장세종 |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제579회 정기연주회 스키

시민 | 대극장 10.14.(목)~10.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조진주



제580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안

문화 | 대극장 11.4.(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이민형 | 피아노 홍민수



제581회 정기연주회 모차이즘

문화 | 대극장 11.2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피아노 김대진



제582회 정기연주회 시작 아니면 끝

문화 | 중극장 12.16.(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최희연
작곡 김택수(2021 올해의 예술가)



부산시립교향악단_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

문화 | 대극장 1.12.(화) 7:30pm
All Seats 5,000원



제76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시민 | 대극장 2.18.(목)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중극장 3.10.(수)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II
시민 | 대극장 3.30.(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
문화 | 챔버홀 4.16.(금)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V
시민 | 대극장 5.25.(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I
문화 | 챔버홀 7.2.(금)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친구 [취소]
문화 | 대극장 8.10.(화) 3:30pm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I [취소]
문화 | 중극장 8.27.(금) 9:00pm
All Seats 10,000원



제77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9.30.(목)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V
시민 | 대극장 10.13.(수)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III
문화 | 챔버홀 10.21.(목)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대극장 11.11.(목)~11.12.(금) 11:00a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II
문화 | 중극장 12.3.(금) 9:0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VI
문화 | 중극장 12.14.(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립합창단_정기연주회

제181회 정기연주회
뮤지컬 칸타타 '아! 나의 조국!'
문화 | 대극장 5.13.(목)~5.14.(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시놉시스, 작곡 이진실 | 지휘 이기선



제182회 정기연주회 / 대규모 합창음악회
위로의 메세지
문화 | 대극장 6.24.(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지휘 이기선 | 바리톤 고성현 |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해설이 있는 현대 합창의 밤 III
문화 | 대극장 10.7.(목) 7:3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이기선



제184회 정기연주회
**정적연주기법에 의한
헨델의 메시아 대연주회**
시민 | 대극장 12.9.(목) 7:3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이기선 | 반주 카메라타안티카(고음악 전문 연주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강혜정 | 알토 양송미 | 테너 조성환 | 베이스 박흥우



부산시립합창단_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1
새봄을 꿈꾸며
문화 | 대극장 3.4.(목) 7:30pm
All Seats 10,000원
객원지휘 이상길



가요합창음악회
2021 Summer Fantasy '시간(時間)'

문화 | 대극장 7.22.(목) 8:0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임희준 | 연주 이삼열 밴드 외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취소]

문화 | 대극장 10.25.(월)~10.28(목) 6:00pm
All Seats Free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외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2
Healing for you

문화 | 대극장 11.9.(화) 7:30pm
All Seats 10,000원
객원지휘 이수은



부산시립무용단_정기공연

제83회 정기공연
한국춤 명품 컬렉션 '본색'

문화 | 대극장 5.27.(목)~5.28.(금) 8:00pm
R 20,000원 S 10,000원
안무 이정윤



제84회 정기공연
소생

문화 | 대극장 12.10.(금) 8:00pm
12.11.(토) 5:00pm
R 20,000원 S 10,000원
안무 이정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_정기연주회

제209회 정기연주회
명품 재창작 관현악

문화 | 대극장 3.18.(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제210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문화 | 중극장 6.10.(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집박 김수일



제211회 정기연주회
국악칸타타

문화 | 대극장 9.8.(수)~9.9.(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 작곡 김은혜 | 작시 이청산



제212회 정기연주회
명인·명창·명기의 무대

문화 | 중극장 10.21.(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판소리 박성희, 정선희 | 태평소 김경수 | 가야금 송영남, 하지희
※ 대통령상 수상자 무대



제213회 정기연주회
2021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28.(화)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_특별연주회

협주곡의 밤

문화 | 대극장 4.22.(목)~4.23.(금)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해금 서은영, 안은경, 김준희, 윤해승(22일)
가야금곽수은, 오해향, 윤경선, 최미란(23일)



신축다례연(辛丑茶禮宴)

문화 | 대극장 5.7.(금)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정수 | 행다시연 (사)한국차인연합회 부산지연
차용무 부산시립무용단 | 시조 이아미



스타 프로젝트
그대를 그리웁다

문화 | 중극장 7.8.(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취소]

시민 | 대극장 8.11.(수)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가야금 김혜진 | 소프라노 남순천, 김나영
사물놀이 전학수, 이주현, 최오성, 박재현



제4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대극장 11.24.(수) 7:30pm



부산시립극단_정기공연

제69회 정기공연
a point of CONTACT

문화 | 중극장 4.9.(금)~4.11.(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R 20,000원 S 5,000원
작·연출 김지용



제70회 정기공연
벚꽃 동산

문화 | 중극장 7.1.(목)~7.3.(토)
평일 7:30pm 토 5:00pm
R 20,000원 S 10,000원
원작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 객원연출 강성우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찰스 디킨즈 '크리스마스 캐롤'

문화 | 대극장 12.23.(목)~12.24.(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원작 찰스 디킨즈 | 각색/작사/연출 김지용
지휘 이기선 |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출연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극단_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제1기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

미정
원작 제임스 매튜 베리 | 대본, 작사 강보람
작곡 전현미 | 연출 김지용



안데르센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9.28.(화)~10.23.(토) 11:00am
(일요일 공연 없음) ※ 평일 단체, 토요일 일반
All Seats 10,000원
원작 안데르센 | 연출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_정기연주회

제64회 정기연주회
화려한 전성기, CLIMAX

문화 | 대극장 3.19.(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 협연 피아윤



제65회 정기연주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문화 | 대극장 9.14.(화) 7:30pm
All Seats 2,000원
객원 지휘 강석희



제66회 정기연주회 및 2021년 송년음악회
겨울...차이콥스키

문화 | 대극장 12.2.(목)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_특별연주회

2021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중극장 5.21.(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점점 Poco a poco

문화 | 대극장 10.6.(수)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청소년 실내악의 밤

문화 | 챔버홀 10.23.(토)~10.24.(일) 5: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_정기연주회

제158회 정기연주회
제비던

문화 | 대극장 5.29.(토) 7: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제159회 정기연주회
양탄자타고 음악여행 II [취소]

문화 | 대극장 9.11.(토) 5: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제160회 정기연주회
Santa, Jazz Unplugg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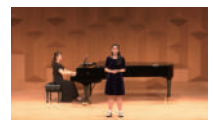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12.17.(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_특별연주회

향상음악회

문화 | 챔버홀 2.19.(금)~2.20.(토)
금 7:30pm 토 5:00pm
All Seats Free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취소]

문화 | 대극장 11.5.(금)~11.6.(토)
금 7:30pm 토 5:00pm
All Seats Free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ackage Ticket

2021-22 BSCC

프리미엄 패키지(40%) [판매종료]

■ V+R 320,000 192,000 R 300,000 180,000 S 210,000 126,000

- 프리미엄 1.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 프리미엄 2. 낭만희극 <십이야(十二夜)>
- 프리미엄 3.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 프리미엄 4.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 프리미엄 5.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공>

* 최고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연극/뮤지컬 패키지(30%)

■ R 170,000 119,000 S 120,000 84,000 A 80,000 56,000

- 연극/뮤지컬 1. 낭만희극 <십이야(十二夜)>
- 연극/뮤지컬 2. 연극 <흑백다방>
- 연극/뮤지컬 3.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 연극/뮤지컬 4. 연극 <단편소설집>

발레/무용 패키지(30%) [판매종료]

■ V+R 240,000 168,000 R 200,000 140,000 S 120,000 84,000

- 발레/무용 1. 에이프만 발레<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 <안나 카레리나> (작품 중 택 1)
- 발레/무용 2.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 발레/무용 3. 이정윤 안무신작 <MOTI/어디로부터>
- 발레/무용 4.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 최고 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클래식/오페라 패키지(30%) [판매종료]

■ V+R 310,000 217,000 R 260,000 182,000 S 190,000 133,000

- 클래식/오페라 1.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 클래식/오페라 2. 프레데리크 기 피아노 리사이틀
- 클래식/오페라 3.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 클래식/오페라 4.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공>

* 최고 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NT Live 패키지 [판매종료]

■ 40,000 28,000

- NT Live 1. 워 호스 War Horse
- NT Live 2. 리어왕 King Lear

<인문학+ 콘서트> 패키지

- 인문학+ 콘서트 6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판매종료]
- 인문학+ 콘서트 4편 이상 동시 구매 시 30% 할인 [판매종료]
- 인문학+ 콘서트 2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Season Program

<시네 오페라 초이스> 패키지

- '시네 오페라 초이스' 4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판매종료]**
- '시네 오페라 초이스' 3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판매종료]**
- '시네 오페라 초이스' 2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자유 패키지

-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기획공연 중 5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기획공연 중 3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 NT-Live, 인문학* 콘서트, 시네 오페라 초이스,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신비아파트 시즌4, 알사탕, 피가로의 결혼, 조수미&이무지치, 2021 제야음악회 공연은 패키지에서 제외
- * 자유 패키지는 동일 등급에 한해 구입 가능

패키지리켓 오픈: 2021. 1. 19.(화) 오후 2시

패키지 구매 시 유의사항

- 패키지 예매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온라인예매: www.bscc.or.kr
 - 고객센터 전화예매: 051-607-6000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동일공연 중복선택 불가)
- 모든 패키지는 묶음구성이므로, 공연별 편당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구성공연의 첫 공연 시작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패키지 취소는 첫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전화 취소만 가능합니다.
 - 단, 첫 공연이 일요일 또는 월요일일 경우, 그 전 주 금요일 5시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 패키지 구성 공연 중 일부 취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연은 패키지 할인율을 적용해 환불됩니다.
- 패키지 구성공연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 예매가 조기매진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부산문화회관



지하철 2호선 대연동역 하차,
5번 출구로에서 유인 교차로 방향으로
도보 10분



• 시내버스 51번, 68번, 134번, 138번
• 마을버스 남구9번, 남구10번



공연 시간 **1시간 전 / 30분 전** 2회 운행
(※ 공연 시작시간에 따라 운행시간 변경,
낮 공연 운행 없음)

부산시민회관



1호선 범일역 하차, 2번 출구(도보 10분 소요)
2호선 문현역 하차, 3번 출구(도보 3분 소요)



• 시내버스 2번, 68번, 11번, 80번, 99번, 83-1번, 63번, 57번, 138번, 23번, 83번, 10번, 108번, 81번, 43번, 52번, 5-1번, 22번, 40번, 134번, 27번, 26번, 41번, 82번, 101번, 42번, 1583번, 24번
• 마을버스 남구3번, 남구5번
• 좌석버스 1000번, 1003번, 1004번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051-607-6000

ARS ① 한국어 문의

ARS ② 외국어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국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흥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 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051-607-6123)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BSCC Business Membership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법인이라면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의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 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 원(50매)	300만 원(30매)	100만 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제시 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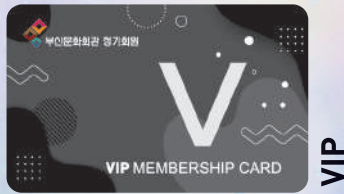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00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선 예매 서비스제공(일부공연 제외)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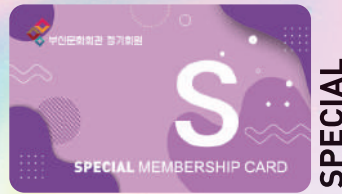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마감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 중에서 예약 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조기마감)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가입단체 공연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 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할인이율 달라질 수 있음.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 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21년부터 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 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 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TEL. 051)607-6000 FAX. 051)607-611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특별한혜택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Busan Cultural Center

VIP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1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형제 피아니스트의 첫 듀오 무대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3월 6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종료**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워 호스(War Horse)>,
<리어왕 (King Lear)>**

4월 24일(토), 10월 23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20매)

뉴에이지의 거장, 피아노의 음유시인
2021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5월 28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종료**

프랑스를 대표하는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프레데리크 기(Frédéric Guy) 리사이틀

6월 15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20매) **취소**

빈필과 베를린필의 매혹적 만남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6월 22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취소**

은반 위에 펼쳐지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7월 31일(토) 오후 2:00, 5:00, 8월 1일(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취소**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8월 28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종료**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8월 14일(토)~15일(일) 오후 5:00, 17일(화) 오후 7:30,
19일(목)~20일(금) 오후 7:30, 21일(토)~22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민회관(회차별 선착순 R석 30매) **종료**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

이정운 안무 신작
<MOTI/어디로부터>

9월 3일(금) 오후 8:00, 4일(토)~5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30매)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XXL레오타드 안나수아 손거울

9월 9일(목)~1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취소**

셰익스피어 고전에 대한 한국적 재해석

낭만희극 <십이야>

9월 17일(금) 오후 7:30, 1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종료**

꿈꾸는 청춘들의 치열한 농구 한판

창작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10월 9일(토) 14:00, 18: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오후 2:00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막히는 심리게임

흑백다방

10월 23일(토)~24일(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얼어버린 두 손의 천재음악가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11월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I

(재)부산문화회관&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11월 26일(금) 오후 7:30, 27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영원한 히어로

썸머 나이트 콘서트

12월 16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스승의 삶을 흥친 제자의 딜레마

단편소설집

12월 17일(금) 오후 7:30, 1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일정 연기**

성악과 기악의 정점에서 만나는 바로크 음악

조수미 & 이 무지치

12월 18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10매)

* 1인 1~2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아티스트들의 입국상 어려움으로
해외초청공연이 부득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051-607-6116)

부산문화회관

플러스 **무료** 회원 가입 캠페인



일상을 컬러 **플** 하게
문화를 파워 **플** 하게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무료 회원인 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문자를 통한 공연 알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공연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고 푸짐한 경품 혜택도 누리세요!**

대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가입기간

2021년 7월 1일(목) — 12월 31일(금)

참여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모바일

당첨자 발표

2022년 1월중, 당첨자 개별공지

경품내용

선물1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10만원 상당)
선물2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5만원 상당)
선물3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3만원 상당)
선물4	100명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2만원/모바일)
선물5	100명	해리스 카페 아메리카노 쿠폰(5천원/모바일)
선물6	100명	부산문화회관 월간지 <예술의초대> 1년 구독권
선물7	100명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플러스 회원 가입 신청서



QR코드로
간편가입

이름

아이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로그인 시 최초 비밀번호로 설정됩니다.

이메일

주소

이벤트 당첨 시 기재해 주신 주소로 경품 발송됩니다.

SMS/이메일 수신동의

플러스 무료 회원의 혜택인 공연 문자 알림과 뉴스레터 수신을 위하여 SMS/이메일 수신동의는 필수입니다.

정보제공 활용동의

제공해주시는 개인정보는 (재)부산문화회관의 회원 가입 및 공연정보 등을 제공하고 경품 추첨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플러스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경품 추첨에 제한이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제77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2021. **9.30** THU 7:30 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거리두기 좌석제)
Busan Cultural Center

베토벤 · 「에그몬트」 서곡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中 제1악장
하이든 · 트럼펫 협주곡 中 제1악장
베버 · 클라리넷 협주곡 제1번 中 제1악장
브루흐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中 제3악장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 이민형
피아노 김나현
트럼펫 권한나
클라리넷 최현수
바이올린 심채영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6000(ARS 1번)

얼어버린 두 손의 천재음악가



MUSICAL

라흐마니노프

R a c h m a n i n o f f

2021. **11. 5.**(금) 19:30 / **6.**(토) 1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티켓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문의번호 | 051. 607.6000 (ARS 1번)

(재)부산문화회관 SNS 채널을 팔로우하고 공연, 전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해보세요!

각 채널을 팔로우하시면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의 공연, 전시, 아카데미 이야기들을 더 가까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SNS 공식계정에서만 진행되는 다양한 SNS이벤트들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QR코드를 찍어보시면 SNS계정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네이버블로그
blog.naver.com/
bsccorkr



페이스북
facebook.com/
busancultural
center



인스타그램
@bscultural
center_official



유튜브
배시시TV 구독



카카오토리 채널
재단법인 부산문화
회관 추가



트위터
@vivabsc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10% Discount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ART Project

A to Z

교육기간 2021. 9. 18 ~ 10. 16 (8회차 교육)

교육대상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20명)

프로그램 스토리텔링, 테크랩, 움직임랩
유지력, 판타지랩

장소 부산시민회관

<모집 및 신청>

- **모집기간:** 2021년 8월 30일(월)~9월 10일 (금) 18:00까지
- **교육대상:** 총 20명(초등학교 4학년~6학년)
- **신청방법:** kmj0078@bscc.or.kr 메일 접수
※ 홈페이지 커뮤니티-새소식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장 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연습실
- **수강료:** 무료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재)부산문화회관
- **협 력:** 문화예술연구소 플랫폼
- **문 의:** 예술단 공연사업팀 051-607-3113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썸머니
(\$100 이상 구매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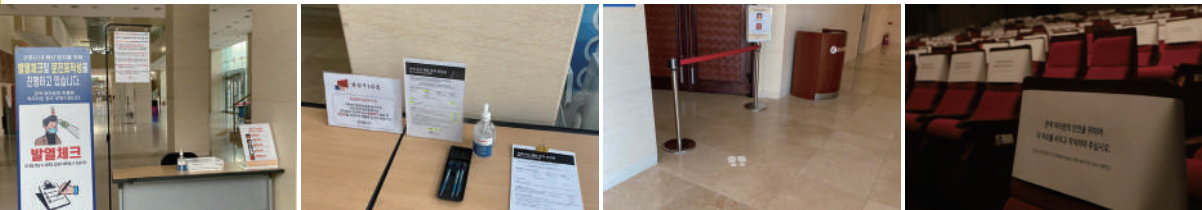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 부산문화회관 공연장

이용수칙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한 공연장 이용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관객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공연장 입장 전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마스크 미착용 시 공연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개인 마스크를 필히 착용 후 방문해주세요.
- ✓ 티켓을 직접 절취하신 후 티켓의 왼쪽 부분(또는 작은 쪽 부분)을 수표함에 직접 넣어주세요.
-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객석'에 맞게 지정된 좌석에 착석바랍니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1. 9. 30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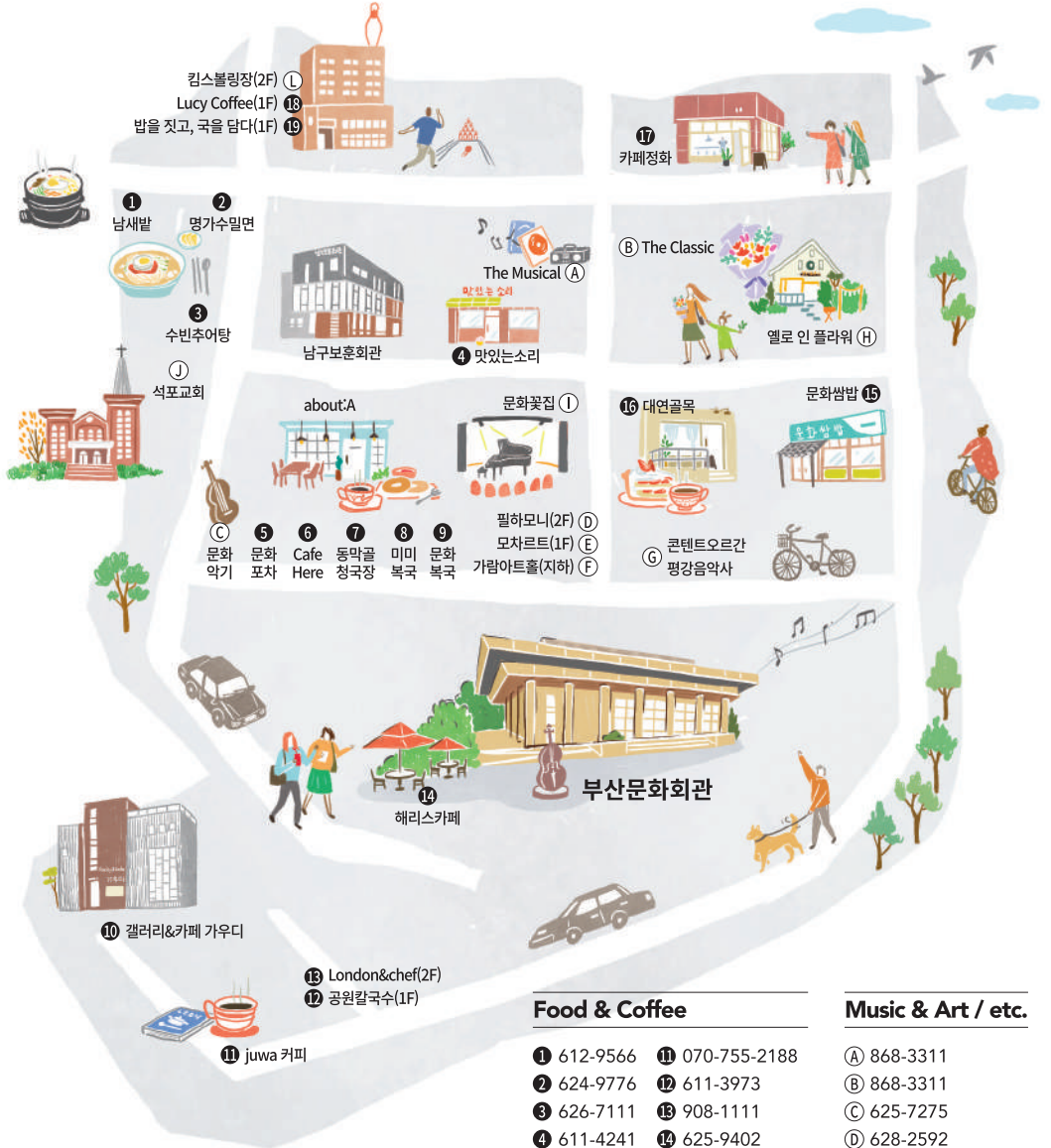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① 612-9566 ⑪ 070-755-2188
- ② 624-9776 ⑫ 611-3973
- ③ 626-7111 ⑬ 908-1111
- ④ 611-4241 ⑭ 625-9402
- ⑤ 626-4448 ⑮ 626-2292
- ⑥ 622-7412 ⑯ 010-3996-6498
- ⑦ 611-3589 ⑰ 623-0772
- ⑧ 628-8009 ⑱ 628-3832
- ⑨ 621-7040 ⑲ 714-3559
- ⑩ 621-5788

Music & Art / etc.

- Ⓐ 868-3311
- Ⓑ 868-3311
- Ⓒ 625-7275
- Ⓓ 628-2592
- Ⓔ 622-1456
- Ⓕ 621-6669
- Ⓖ 626-7900
- Ⓘ 080-337-3370
- Ⓙ 622-9722
- Ⓚ 625-8704

COUPON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정식 1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대연스포츠펀터 킹스볼링장 1층
051)714-3559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우 표

받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INVITATION TO THE ARTS
2021 9 SEPTEMBER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건립기원

2021

BUSAN OPERA WEEK

부 산 오 페 라 위 크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10. 15.(금) - 10. 17.(일)
금 7:30pm 토·일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콘서트 오페라 <카르멘>

11. 6.(토) 6:00pm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부산오페라갈라>

11. 17.(수) 7:30pm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부산문화재단 "2021년 먼구름 한형석문화축전" 사업 연계

창작오페라 <그 이름 먼구름>

10. 22.(금) - 10. 23.(토)
금 7:30pm 토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